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교 미술 교과서 내용분석

-한국화 영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소은

2023년 2월

중학교 미술 교과서 내용분석

-한국화 영역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창 희

박 소 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박소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 창 희 ⑩

위 원 이 수 목 ⑩

위 원 이 승 수 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년 12월



Middle School Art Textbook
Content Analysis

- Focused on the area of Korean Painting -

So-Eun Park

(Supervised by professor Chang-Hui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2.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Chang-Hui Lee, Prof. of Art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중학교 미술 교과서 내용분석
-한국화 영역을 중심으로-

박 소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이 창 희

학교 교육에서의 미술은 바른 인성과 문화적인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핵심 교과이다. 또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인류의 정신적·물질적 유산인 문화를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줄 수 있다. 현재의 미술 교육 과정은 청소년들이 문화적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외래의 문화를 먼저 접함으로 인해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기 힘들어지며 자아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서구 미술의 개념과 인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문화 주체성을 찾기 위해 한국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미술 교과서① 14종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국화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알아본 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중등 미술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위 출판사별 전공 현황, 구성, 한국화 영역 비율 분석, 한국화 단원 분석을 진행하였다.

출판사별 전공 현황은 중등 미술 교과서① 14종의 한국화 전공 저자 수를 분석하였다. 중등 미술 교과서 구성은 교과서의 구성 방식과 특징을 분석하고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화 영역 비율 분석은 각 교과서의 전체 페이지 중 한국화 도판이 포함된 페이지의 비율을 분석하고 한국화와 서양화 도판 수를 비교하

여 정리하였다. 한국화 단원 분석은 각 교과서에서의 한국화 단원의 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특징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미술 교과서① 14종의 한국화 전공 저자 현황은 제일 낮은 교과서가 0%로 한국화 전공 저자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였으며, 제일 높은 교과서는 다락원으로 저자의 20%를 차지하였다.

한국화 영역 비율을 분석한 결과로는 한국화 영역이 가장 높은 교과서는 전체 페이지의 19.5%를 차지한 지학사이며 가장 낮은 교과서는 9.2%를 차지한 해냄에듀이다. 분석한 모든 교과서의 한국화 영역 비율이 20% 미만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한국화 단원 분석에서는 한국화 단원이 이론에 편중하고 체험 활동이 흥미를 끌어들이기 어려운 단순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술 교과서 저자들을 구성함에 있어 한국화 전공자의 비율을 높여 한국화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미술 교과서 내의 한국화 도판 수와 다양성을 늘리고 장르별 도판의 노출 횟수를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장르별 체험 활동 또한 균등하게 구성해야 한다.

셋째, 미술 교과서 내용에서 한국화가 개념 설명과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적 변천 과정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화가 이론에서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미술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화 활동을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와 새로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술 교과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서구적 사상과 인식에서 벗어나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미술 교육에서 전통문화 및 회화를 학습하여 문화적 정체성과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과서의 전통 회화 교육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3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3
1. 한국화의 개념과 역사	3
2. 한국화 교육의 필요성	14
III. 교육과정	17
1. 2015 개정 교육과정	17
2. 미술과 교육과정	19
IV. 중등 미술 교과서 내용분석	23
1. 중등 미술 교과서에서의 한국화	23
2. 중등 미술 교과서의 문제점	71
V. 결론	73
참고문헌	75
<Abstract>	77

표 목 차

<표 1> 총론 및 미술 교과 역량	19
<표 2> 미술 교과 내용 체계	22
<표 3> 교과서별 저자 전공 현황	24
<표 4> 한국화 단원의 내용 체계 영역	40
<표 5> 중학교 미술 교과서 한국화 영역 비율 분석	41
<표 6> 한국화 영역 비율 분석 결과	45
<표 7> 교과서별 한국화와 서양화 도판 수	46
<표 8> 교학도서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47
<표 9> 금성출판사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49
<표 10> 다락원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50
<표 11> 동아출판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52
<표 12> 리베르스쿨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54
<표 13> 미래엔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55
<표 14> 미진사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56
<표 15> 비상교육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58
<표 16> 씨마스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60
<표 17> 아침나라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61
<표 18> 지학사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63
<표 19> 천재교과서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64
<표 20> 해냄에듀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66
<표 21> YBM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67
<표 22-1> 한국화 단원 도판 분석(시대)	68
<표 22-2> 한국화 단원 도판 분석(표현 재료)	69

그림목차

<그림 1> 「고구려 고분벽화의 안악 3호분」	9
<그림 2> 서구방, 「수월관음도」, 1323년, 165.5 x 101.5 cm, 교토센우쿠하쿠코칸	10
<그림 3> 교과서별 한국화와 서양화 도판	46
<그림 4> 동아출판 미술①, p.77.	5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 이르러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이 존재 한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옳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미술 교과는 핵심 역량 및 교과 역량을 반영하여 교과서를 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핵심 역량을 비롯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미술 교육은 미술 교과서의 학습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민족적·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의 국가·지역의 미술을 배우고 더 나아가 세계를 인식하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술 교과서의 대부분의 구성이 서양의 미술, 개념, 생각을 담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한국화를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교과서를 학습함으로써 인해 학생들은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서양적 사고의 개념을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등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서구의 미술은 중요하고 문화적으로 발전되어 있지만, 전통 회화인 한국화는 중요하지 않고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시점에 미술 교과서 구성 중 한국화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등 미술 교과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미술 교육이 학생에게 긍정적인 학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술 교과서 속 한국화 영역의 분량과 내용 등의 실태 및 필요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등 미술 교과서① 14종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등 미술 교과서 교과서별 전공 현황, 구성, 한국화 영역 비율, 한국화 단원을 분석한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중등 미술 교과서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결론을 내렸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I 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II 장은 본 논문에서 분석한 한국화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III 장은 미술 교과서의 기초가 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미술과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IV 장은 2015 개정 중학교 미술 교과서 ①, ② 중 ①을 기준으로 14개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먼저 교과서별 저자 전공 현황과 교과서의 구성 방식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과서 별로 한국화 영역의 비율을 분석하고 한국화 영역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한국화 단원의 분석을 통해 미술 교과서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화의 개념과 역사

전통 회화인 한국화는 고구려 시대의 고분벽화부터 고려 시대 불화, 조선 시대를 거쳐 근현대까지 다양하고 혁신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본 절에서는 미술 교과서 분석에 앞서 한국화의 개념과 역사를 통해서 어떤 회화를 한국화라 정의하는지 그리고 한국화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 지금까지 그 맥락을 이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 한국화의 개념

“공식적으로 ‘한국화’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12월 문교부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1983년 개정된 미술 교과서에서부터이다. 이후 교육계에서는 동양화라는 명칭 대신 한국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¹⁾

서양 문화가 유입된 이후에는 서양 회화와 구분하는 방법과 일본의 문화통치 정책에 의해서 조선화가 아닌 동양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전통 회화를 칭하였다. 그러나 동양화는 한국, 중국, 일본의 회화를 종합하여 말하기 때문에 한국만의 고유한 전통 양식과 기법을 적절하게 표현해주지 못하였다. 일본의 문화통치로 한국 전통 회화를 대신 지칭하는 동양화라는 명칭이 정해져 한국만의 문화가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게 하였고, 식민지인 한국의 주체성을 밟았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해방 이후 한국 문화만의 회화를 칭하는 명칭이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고유 명칭의 필요성을 느낀 화가들은 1982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한국화’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더욱 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한국화는 고유한 명칭으로 정해졌지만, 한국화를 대신하여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미술을 통틀어서 동양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유는 동양화라

1)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화」, <https://terms.naver.com/>, 2022년 11월 1일.

는 명칭의 기간이 더 길고 공식적으로 동양화라고 자주 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와 양식을 지키고 그 중요성을 지키기 위해 한국화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지칭할 때 동양화로 대체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화는 한국인들의 사상이 담겨있는 의미 있는 회화이다. 주로 자연과 생활 모습을 그려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자연관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인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천인합일 수기치인(天人合一 修己治人)일 것이다. 하늘과 인간, 즉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 하나이고자 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나를 닦아 세상에 쓰임이 되게 하는 것이다.”²⁾ 따라서 자연을 재단하기보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모습, 자연의 꾸밈없는 순수한 모습을 그려낸다.

한국화가 서양화와 확연하게 다른 특징으로는 여백이 있다는 것이다. 서양화는 화면의 구성을 채워서 그리는 물질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이러한 서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여백은 앞으로 채워야 할 공간이자 미완성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은 오히려 그 속에는 그려져서 나타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그림 속에 대상을 모두 다 나타내지 않고 어느 부분을 여백으로 남겨 놓음으로써 시각적 여운을 살려내는 미적 요소인 것이다.”³⁾

여백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뜻뿐만 아니라 그림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마음과 생각까지 포함하는 부분이다.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 감상자는 여유를 감상하고 자신의 상상을 채워 넣기도 한다. 여백은 이러한 감상적인 측면과 화면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여백은 단순히 물체를 감싸는 바깥 부분이 아니라 물체와 물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고, 거리가 구분되는 관계를 연결 지어주는 것이다.”⁴⁾

한국화는 사의성을 중요하게 여겨 이를 작품에 담아내어 표현하는 회화이다. 서양의 미술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한국화는 대상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보다 작가의 생각, 마음, 뜻을 얼마나 잘 담아내어 표현하였는지를 더

2) 백범영(1997), 「한국화의 이해」, 용인대학교 조형연구소, p.31.

3) 오세권(2004), “수용자 해석 공간으로서 ‘여백’(餘白)에 대한 연구 - 현대 한국화에서 나타나는 ‘여백’ 표현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제5권, 제4호, 한국기초조형학회, p.16.

4) 백범영(1997), 전제서, p.33.

중요하게 여겼다. 물체 그리고 대상을 서양에서는 면과 면과의 관계로 파악하여 표현하지만, 한국화는 대상을 선으로 인식하여 표현한다. 한국화의 기본적인 재료는 붓과 먹으로 이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선을 그려낸다. 이 선이 한국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붓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선을 그려내고 먹의 농담을 통해 다양하고 대상에 알맞은 질감을 표현한다. 작가의 감정을 담아내어 그리는 선은 한국화와 서양화를 구분하는 색다른 특징이기도 하며 한국화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화를 재료의 사용에 따라 크게 수묵화와 채색화로 나눌 수 있다. 수묵화를 간단히 말하자면 주로 묵과 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농담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라면 채색화는 채색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회화를 말한다.

수묵화는 먹의 농담과 한지의 재료 특성상 번지는 효과를 이용한다. 필묵은 붓과 먹을 일컫는 말로 작가의 뜻과 느낌을 담아내기 때문에 수묵화 작품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먹의 사용법은 농묵법, 담묵법, 발묵법, 적묵법, 퇴묵법, 파묵법 등이 있다. 농묵법은 짙은 먹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담묵법은 농묵법과 반대로 옅은 먹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발묵법은 먹물이 번지도록 퍼지게 그리는 방법이다. 적묵법은 먹이 마른 후에 먹을 겹치면서 쌓아가는 방법이다. 퇴묵법은 붓을 사용한 후에 마지막 먹 혹은 붓의 먹을 화선지로 흡수시킨 후 남은 아주 조금의 먹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파묵법은 먹이 채 마르기 전에 먹을 겹쳐 올려 형태를 깨뜨리는 방법이다.

붓의 사용법은 갈필법, 공필법, 파필법, 편필법, 독필법 등이 있다. 갈필법은 붓에 적은 양의 먹을 묻혀 거칠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공필법은 인물의 얼굴과 같이 자세한 것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방법이다. 파필법은 붓 끝을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하여 그려내는 방법이다. 편필법은 넓적한 붓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독필법은 붓끝을 잘라 표현하는 방법이다.

작가의 뜻과 화풍, 시대의 유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붓과 먹의 사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수하다. 그 때문에 수묵화는 흑백의 단조로운 그림이 아닌 표현 방법이 다양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량무변한 회화이다.

수묵화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의 종류는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영모화, 사군자

등 다양하다.

산수화는 경치를 그린 그림으로 산, 바다, 강, 언덕, 돌, 나무, 풀, 꽃, 구름 등을 소재로 한다. 산수화는 서양의 풍경화처럼 사실적인 묘사 이외에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의식이 포함되어 자연을 표현하였다. 산수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연을 관찰하여 그리지 않고 상상하여 그리는 관념 산수화와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실경산수화 그리고 자연을 관찰하여 그리지만, 실경산수화보다 회화적인 느낌이 강한 진경산수화가 있다.

인물화는 사람을 주제로 하여 그리는 그림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초상화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며 그 안에 뜻이 담기도록 그리기도 한다. 고사인물화는 고사의 인물을 그리는 그림으로 보통 교훈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그리기도 한다. 도석인물화는 종교적인 그림으로 도교나 불교에 관련된 부처 그리고 보살과 같은 인물을 그리는 그림이다.

화조화는 꽃과 새 그리고 풀꽃을 그린 그림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화조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과는 달리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세밀하지도 않고 소박하고 은은한 우리 고유의 특징”이 있다.⁵⁾

영모화는 새와 짐승 등을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을 말하며 원래는 새를 소재로 한 그림만을 영모화라 불렀지만, 현재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새와 짐승의 털과 깃털의 부드러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표현하였다.

사군자는 매란국죽(梅蘭菊竹)을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으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의 각기 지닌 의미에 따라 문인들이 즐겨 그렸다. 고려시대에 한국으로 들어왔으나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그림은 없다. 조선시대에서도 문인들이 사군자를 즐겨 그렸으며 화원들도 사군자를 많이 그려내었다. 그중에서 김정희와 조희룡은 대표적인 사군자 화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수묵화는 단어 그대로 물과 먹을 이용해 그리는 그림이지만 색채를 더하여 그리는 수묵담채화와 중채도 수묵화에 포함된다.

수묵담채화는 수묵화에 색채를 올려 그린 그림을 말한다. 수묵화는 선을 이용하

5) 윤희순(1994), 「조선미술사통론」, 동문선, p.185.

여 정신을 표현하며 점, 면, 찰, 준 등의 기법보다 선을 우선시하였다. 색채는 선을 보조하기 위한 역할로 사용되었다. 그 때문에 색을 사용하는 수묵담채화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였었다. 그렇지만 수묵담채화는 색채가 수묵화에 올려진 그림으로 묵으로 그려진 필선을 넘지 않도록 약한 정도로 번지게 채색하여 그리는 특징이 있다. 수묵화의 번지는 특성과 먹의 농담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 때문에 채색은 주가 아닌 보조의 역할을 하였다.

중채는 수묵담채 중에서 색이 좀 더 진하게 올라오는 그림을 말한다. 신윤복의 작품은 수묵담채의 대표적인 예로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색채가 필선 안으로 칠해져 있지만, 채색화와 같이 그 색이 진하게 칠해져 있다. 때때로 수묵화와 진채를 구분 짓기 힘든 그림을 중채라고 칭하기도 한다.

채색화는 물감을 주로 사용하여 그리는 그림으로 역사가 깊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회화이다. 색채를 계속하여 쌓아 올리기 때문에 색이 깊고 영롱하여 장식적이고 화려하다는 특징이 있다. 채색화는 수묵화와 같이 필선이 주가 되는 회화가 아니기 때문에 채색이 주가 되고 필선을 그림의 대상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진채가 수묵담채, 중채와 확연하게 다른 점은 먹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특징이다. 먹이 하는 필선의 역할을 진채에서는 색과 색의 구분이 그 역할을 한다. 아교가 덧발라져 있는 바탕재 위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번짐이 덜하고 정교한 묘사가 가능하여 기교 있는 기법이 가능하여 화려하고 색을 덧칠할 수 있으므로 중후한 매력이 엿보인다.

채색화의 재료는 석채, 분채, 안채, 편채, 봉채, 튜브물감 등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종류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연에서 재료를 직접 얻어 사용하였으며 그 예로는 석채나 분채가 있다.

석채는 광물을 갈아서 만든 재료를 말한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천연 석채 뿐만 아니라 인공 석채를 사용하기도 한다. 인공 석채는 가격이 저렴하며 그 색이 선명하고 혼색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천연 석채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분채는 황토나 호분 등 자연 재료를 갈아 만든 가루이다. 석채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색상이 다양하다. 석채와 분채는 가루이기 때문에 화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교라고 하는 접착제를 섞어 사용해야 한다.

안채는 분채 물감과 아교를 섞어 작은 그릇에 건조한 것으로 건조 후 사용하면 수채화 물감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어 휴대성이 좋다.

편채는 단어 그대로 물감을 편으로 말려 만든 것으로 물에 녹여 사용한다. 붓채는 분채를 아교와 섞어 붓 모양으로 굳힌 것이다. 사용법은 먹과 비슷하며 접시에 물을 넣어서 갈아서 사용한다. 튜브물감은 수채화 물감과 같이 튜브에 들어있는 물감을 말한다. 색의 종류가 다양하며 사용하기 간편하다. 채색화는 재료의 사용의 따라 수묵화와 분리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묵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의해 먹을 이용하여 외곽선을 따는 등 종종 사용된다.

전통 채색화는 바탕재로 주로 종이를 사용하지만, 비단이나 광목 등 천이나 나무 등 여러 가지 바탕재에 그림을 그렸다. 문헌상에 나오는 조선의 종이를 분류하면 제지 원료에 따라 분류, 색채에 따른 분류, 두께·광택·질에 따른 분류, 생산지에 따른 분류 등으로 나누어진다.⁶⁾ 현대는 순지, 장지, 화선지 등이 대표적인 한지로 캔버스나 다른 바탕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채색화는 재료의 특성상 한번 올리기보다는 여러 번 겹쳐 올려 깊은 맛을 낼 수 있으므로 물감을 버틸 수 있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현대 채색화는 서양의 기법과 여러 방식이 분화됨에 따라 채색화의 양식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어떤 양식이라 구분 짓기 어려워져 새로운 회화의 양식을 피워내고 있다.

2) 한국화의 역사

미술 작품에는 그 나라와 시대의 상황, 문화, 사람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 등이 담겨있는 시대의 거울이다. 한국화의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술 교과서에서 한국화는 크게 전통 회화와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천 과정 영역에서 나타난다. 한국화의 역사를 알아보고 미술 교과서 분석을 통해 한국화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한국화의 첫 사례로는 고구려의 고분벽화가 있다. 삼국 시대의 작품은 대부분

6) 고명희(2018), “한국 근·현대 채색화의 표현기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29.

소실되었지만 고구려 고분벽화는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어 한국화의 역사적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다. 고분벽화는 무덤 안 벽과 천장에 그려진 그림을 말한다. 4세기에서 7세기 고구려에서 가장 유행하였으며 현재는 중국과 한반도에 존재한다. 고구려 벽화는 주위 나라인 백제와 신라 등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서 그 시대의 생활양식, 풍습, 전통, 종교, 채색화 등의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고분벽화를 만든 대표적인 이유는 고분의 주인들을 위한 문화적 산물이다. 고분의 주인들은 일반 시민이 아닌 권력 있는 사람인 왕과 귀족으로 추정된다. 당시 시대의 종교와 풍습에 따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살아있을 때와 같이 권력을 누리는 삶을 살고,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뜻으로 벽화를 제작하였다. 벽화의 내용으로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 풍속, 의, 식, 주, 종교 등이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구려의 회화 양식을 추측하고 예상하며 연구할 수 있다.



<그림 1> 고구려 고분벽화의 안악 3호분

북방민족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안악 3호분>은 황해도 안악군 용순면 유순리에 위치한 벽화 고분으로 여러 방이 모여져 있는 무덤형식이다. 안악 3호분에 사용된 안료는

고구려 고분벽화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기는 3세기 말에서 5세기 초, 2기는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초, 3기는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전반을 말한다. 본 항에서는 1기의 작품을 살펴 보도록 하였다.

<무용총 수렵도>와 <안악 3호분>은 5세기 이전에 그려진 작품으로 1기에 해당한다. 1기는 주로 무덤 주인들의 생활 모습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담겨있다. <무용총 수렵도>는 역동적으로 사냥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 낸 작품으로 고구려의 씩씩하고 용감한

석간주(적갈색), 적색, 황색, 녹색, 흑색, 백색, 연백 등 다양한 안료가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고구려 시대부터 다양한 안료를 사용하여 한국화를 그려냈음을 알 수 있고, 한국 회화의 전통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2기에는 주로 종교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스님, 승려를 그려낸 그림들이 많았으며 3기에는 도교에 의해 사신도가 그려졌다.

고려 시대는 국교인 불교 미술이 융성하게 나타난 시대로 불화가 무수하게 그려졌다. 시대적으로 북송, 남송, 원, 명 등 중국의 미술의 영향을 받았지만 고려 시대의 불화는 한국만의 특징을 담아내었다. 고려 시대의 불화는 귀족문화 덕분에 번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려 시대 불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니를 사용하여 화려한 문양을 섬세하게 그려내었다는 것이다. 둘째, 고려 귀족의 화려하고 우아한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백색, 흑색, 녹색,



청색, 적색, 황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색채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다.⁷⁾ <수월관음도>는 대표적인 불화 중 하나로 배채법, 금니를 사용하여 화려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배채법은 종이 뒷면에 색을 칠하는 방법으로 채색의 얼룩짐을 방지하고 은은한 느낌과 깊이를 살릴 수 있다.

수월관음도에서 채색이 사용된 부분을 작품의 윗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백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보살상은 투명한 천의를 쓰고 있는데 이는 발 아래 부분까지 이어져 백색으로 투명하게

표현하여 신비하고 우아한 자태를 표현하였다. 이마에는 흰색의 빛나는 털이

<그림 2>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7) 김민(2019), “고려불화와 조선불화에 사용된 채색 비교”, 「석당논총」, 제73권, 0호,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p.61.

있다. 승각기의 무늬가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군의의 일부분에 흰색으로 칠해졌다. 보살상 옆쪽으로는 정병이 있는데 받치는 유리 대접이 투명하여 세련되어 보인다.

흑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눈동자가 검은색으로 또렷하게 칠해져 있다. 녹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정병에 담겨있는 버들가지가 푸르다. 연봉과 꽃의 이파리가 풀빛으로 표현되었다. 목에는 목걸이가 걸어져 있는데 중앙의 보석 주위에 3개의 녹색의 보석이 박혀있다.

청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목걸이의 중심과 팔찌에 푸른 보석이 달려있다. 보살상 뒤의 절벽 바위들의 거의 전체 면적이 푸르게 칠해져 있다. 바다에 푸른 산호가 있다.

적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머리에 가득 수 놓아진 꽃들은 당초문과 국화모양의 연꽃이 금선과 붉은색으로 묘사되어 있어 정교하고 화려한 편이다.⁸⁾ 보살상이 입고 있는 대의는 붉은색으로 꽃문양이 그려져 있다. 그가 걸치고 있는 목걸이 중앙에는 4개의 보석과 팔찌에 보석이 박혀있어 화려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보살상은 군의를 입고 있는데 그 색이 붉은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다. 바다에는 붉은 산호가 있다.

금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수월관음도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금색이 칠해져 있어 보살의 근엄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승각기(僧却崎)가 금색으로 표현되며 그 중앙에는 흰 별 무늬가 그려져 있어 화려한 모습을 취한다. 군의(袈衣)의 끝단은 넓은 편인데 금색 바탕에 흰색이 부분적으로 칠해진 보살당초무늬(구름무늬형)가 상당히 화려한 편이다.⁹⁾ 보살상은 바위에 앉아있고 그 밑으로는 바다가 펼쳐져있다. 그 옆의 절벽 바위는 빛을 받는 듯한 부분은 금색으로 밝게 칠해져 있다.

<수월관음도>는 당시의 고려 시대 귀족들의 화려하고 섬세한 취향이 잘 드러나며 배채법, 금니의 사용 등을 통해 고려 시대 채색화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8) 문명대(2015), “泉屋博古館 소장 서구방(徐九方)필 1323년 작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연구”, 「강좌미술사」, 제45권, 0호, 한국미술사연구소, p.384.

9) 고승희(2006), “서구방필 수월관음도 문양을 통해 본 유평 연구”, 「강좌미술사」, 제26권, 제26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842.

조선 시대는 유교와 실학을 바탕으로 소박하고 서민적이며 실용적인 미술이 유행하였고 고려 시대의 화려한 불교 미술은 쇠퇴하였다. 그러나 고려 시대의 전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도화원을 이어 도화서가 설치되었다. 도화서를 통해 화원들이 다수 배출되었으며 조선 시대는 우리나라의 회화가 가장 발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는 회화의 양식에 따라서 전기(1392~1550년경), 중기(1550년~1700년경), 후기(1700~1850년경), 말기(1850~1910년경)로 구분할 수 있다.¹⁰⁾

조선 전기 회화는 중국 화풍인 광희파, 원체 화풍, 절파 화풍, 미법 산수 화풍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발전시켰다. 북송 광희 화풍에 영향을 받은 안견의 그림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그의 꿈속의 경관을 설명하여 그리게 한 작품이다. 작품 속에 안평대군이 쓴 발문과 당대의 고사 20명들이 쓴 20여 편의 찬문이 새겨져 있는 문학적로나 서예적으로나 큰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이후 한국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몽유도원도>뿐만 아니라 신사임당의 <초충도>와 이암의 <모견도> 등을 통해 조선 초기 작품들은 중국 화풍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양식으로 소화시켜 한국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에는 초기 화풍이 계승됨과 동시에 남종화와 김명국, 이경윤 등에 의해서 절파 화풍이 유행하였다. 김명국의 <달마도>는 17세기에 그려진 작품으로 비교적 간결하고 대담한 선으로 달마의 정신세계를 표출하였다. 중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나라의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로 사대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달랐다.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수묵화가 발전하고, 영모화, 화조화, 묵죽도, 묵매도 등의 개성 있는 회화가 나타나고 발전되어 한국화가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시기로 진경산수가 정선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의 자연 풍경을 보고 이를 화폭에 담아내는 생동감 있는 회화이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려내는 풍속화는 김홍도, 신윤복에 의해 발전되었다. 조선 후기는 진경산수화와 풍속화를 통해 한국적인 화풍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특히 김홍도는 서민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양반을 풍자하는 작품을 그려내었고, 신윤복은 남녀의 모습 중 특히 여자들의 모

10)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 회화」, <https://terms.naver.com/>, 2022년 12월 14일.

습을 과감하게 그렸는데 이는 이전의 시대에서 볼 수 없던 그림으로 그의 작품은 대단히 파격적인 작품이었다. 조선 초기가 송·원의 영향을 후기에는 명·청의 영향을 받았지만, 후기 역시 우리나라의 민족적 색을 많이 띠는 작품 활동을 진행하였다.

조선 말기는 후기의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쇠퇴하였고 김정희와 같이 남종문인화가 위세를 펼친 시기이다. 중국으로부터 서양의 기법이 들어와 표현기법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뿐만 아니라 김수철, 홍세섭 등의 개성이 강한 이색 화풍을 형성하는 화가들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화의 한 종류인 민화는 후기와 말기에서도 유행했던 회화로 집이나 내부 공간을 장식하거나 염원을 담고 있어 계급에 상관없이 사랑받았다.

조선말기 이후 한국화는 한일합방 전후, 1920년대, 1930년대, 과도기, 1950~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로 구분할 수 있다.

한일합방 전후의 한국화 특징은 조선 말기의 김정희의 영향으로 진경산수가 사라지고 관념 산수가 유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추사 김정희로 인해 문인 취미 예술이 강력한 복고주의를 일으켰다.

1920년대에는 조선 미술 전람회와 서화협회 등의 미술 단체와 미술 전람회가 활동하였다. 조선 미술 전람회를 줄여 선전이라고 하는데 초기 선전에서는 서화협회 회원들이 전통적이고 관념적인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후기 선전에서는 일본의 미술을 받아들이는 작가들이 등장하는 추세였다.

1930년대는 결국 관념 산수가 사라지고 남은 사경 산수와 일본 미술인 신감각주의가 대립하였는데 이는 194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사경 산수는 진경산수의 맥을 이어받았으면서도 서양 기법의 영향으로 인해 조금 더 현실을 사실적으로 현실을 그려낸 회화이다. 1940년대는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해서 창작 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활동의 정체기를 맞았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해방을 맞았으나 아직은 자유를 완벽하게 즐길 수 없던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러나 개성적인 한국화 활동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났으며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화를 그려내었다. 변관식은 구도에서 입체파적인 면모를 보이면서도 <외금강 삼선암>에서 적목법과 파선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개성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1970년대는 사경 산수화가 유행하였다. 1960년대에 다양하고 다채로운 양식이 한국화 작품 속에서도 나타남에 따라 작가들은 전통 한국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전통에 대한 회귀로 이끌었다.

198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수묵화 운동이다. 수묵화 운동은 수묵화 계열 작가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운동이다. 1960년대 묵림회와 80년대 수묵화 운동의 차이점이라면 묵림회는 “매재의 확대와 의식의 변혁을 내세운 것”¹¹⁾이고, 수묵화 운동은 “본래적인 정신을 수묵이라는 순수한 매재를 통해 검증한다는 움직임이다.”¹²⁾

현대 한국화는 작가가 어떠한 작품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재료나 장르에 어떠한 구애를 받지 않고 경계와 한계를 넘나들고 있다. 그만큼 한국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과 고찰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만의 전통성을 확립하면서 세계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2. 한국화 교육의 필요성

21세기에 이르러 세계의 여러 나라가 활발한 교류를 주고받고 있다. 세계화를 통해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어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정체성은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포함 한다.”¹³⁾ 따라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회나 문화 혹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각 지역 사회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은 독특한 하나의 특성으로 이는 개인의 경쟁력이자 국가의 경쟁력이기도 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11) 위상(2021), 「위상 미술이론. 2」, 미래가치, p.267.

12) 상계서, p.267.

13) 남해신문, “문화정체성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문화정체성은 무엇인가?(1)”, 2022년 11년 04일, p.1.

한국화 교육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생활양식, 종교, 예술, 선조의 가치관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국화를 통해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붓, 먹, 벼루, 현대적 재료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고 고유한 표현기법을 통해 대상을 그려내며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을 그려내는 조형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회화의 시대적·지역적·민족적·문화적 배경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족과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이끌어주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회화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가 미래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해 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화 교육은 미술 교육에서의 중요성이 부각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미술 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양의 미술이 무조건 옳고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화와 다른 문화의 미술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실제 미술 교육에서의 주류는 서양 미술의 개념, 이론, 매체 등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서양 미술은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높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한국화 교육은 다른 회화에 비해 접근성이 낮고 설명과 체험 활동이 부족하여 전통 회화 이론과 개념에 대해 어려워하고 이해도가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회화에 편중된 교과서 구성이 아닌 균등한 구성을 통해 한국화 교육이 진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한국화를 배우으로써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을 학습하고 문화의 다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특징이자 매력이기도 하다. 한국화는 서양의 미술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미술 교육을 통하여 해당 문화의 미의식과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배우고 이를 현대 시대에 알맞게 발전시켜 한국 문화와 한국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의 미술 교육의 주류가 서양 미술로 변화함에 따라 삼국 시대부터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해온 우리나라만의 특이하고 독특한 전통 회화가 다소 오래되고 구식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서양의 교육관에서 탈피하고 미술 교육에서 한국화의 비중을 높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한 한국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한국화 교육을 통해 올바른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확립하여 무분별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학교, 교사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어떠한 편협한 시각으로 인해 어렵고 낯설게 생각되었던 한국화를 새롭고 창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Ⅲ. 교육과정

1. 2015 개정 교육과정

2021년 말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발표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당장 시행되지 않고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이 반영되어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할 수 있도록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1)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 사회,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¹⁴⁾ 미술 교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을 반영하고 준용하였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 구성 방향

본 항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 역량,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목표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4) 교육부 고시(2015),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p.5.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¹⁵⁾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미술 교육을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이 학생을 민주 시민으로 기르기 위해 이와 같은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2) 핵심 역량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¹⁶⁾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화 교육을 통해 서양 미술의 무분별한 지식과 개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정보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생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 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

15) 상계서, p.1.

16) 교육부 고시(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중학교」, p.34.

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¹⁷⁾

2. 미술과 교육과정

1) 성격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 활동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⁸⁾ 미술 교과는 총론을 반영하되 미적 가치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도록 역량을 지정하였다.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과 미술 교과 핵심 역량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총론 및 미술 교과 역량

*핵심 역량이 교과 역량에 그대로 연계된 경우 → 핵심 역량이 교과 역량에 나뉘어 연계된 경우 →

총론의 핵심 역량		미술 교과의 핵심 역량
의사소통 역량	→	시각적 소통 능력
지식 정보 처리 역량	→	창의·융합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	미적 감수성
심미적 감성 역량	→	미술 문화 이해 능력
공동체 역량	→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자기 관리 역량	→	

출처: 최찬경 외 5인(2018), 「중학교 미술① 교사용 지도서」, 금성출판사, pp.12~13.

미술 교과 역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7) 상계서, p.45.

18) 교육부 고시(2015), 「미술과 교육과정」, “제2015-74호[별책13]”, pp.3~4.

- 가. ‘미적 감수성’은 다양한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미적 경험에 반응하면서 미적 가치를 느끼고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 나. ‘시각적 소통 능력’은 변화하는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와 정보, 시각 매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활용한 미술 활동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 다. ‘창의·융합 능력’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미술 활동 과정에 타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연계, 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다.
- 라.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은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 마.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은 미술 활동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를 계발·성찰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배려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¹⁹⁾

한국화 교육은 미술과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아 어렵고 낯설었던 한국화 작품들을 접함으로써 작품 속에서 읽을 수 있는 배경과 표현기법 등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하며 한국화의 미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한국화의 작품은 다양한 이미지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회화이다. 이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한국화는 그리는 사람과 재료, 표현하려는 대상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다른 분야와 접목하는 활동을 진행함에 따라 창의·융합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삼국 시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발전하고 있는 한국화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여실히 담고 있는 가치 있는 우리의 회화이다. 한국화의 역사를 배움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

19) 상계서, pp.3~4.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존중해주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2) 중학교 미술 목표

중학교 미술에서는 초등학교 미술에서 기른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다.

자신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시각 문화의 소통 방식을 활용하며,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능력을 기른다.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여 효과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미술의 변천 과정과 맥락을 이해하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미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²⁰⁾ 중학교 미술은 4개의 목표를 두고 있다.

3) 중학교 미술과 내용 체계

중학교 미술과 내용 체계는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을 중심으로 이를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기능은 영역의 주요 활동이다.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을 통해 미술 교과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기준을 달성하고자 한다. ‘체험’ 영역에서는 시각적 문해력과 융합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과 환경을 살피고, 세계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미지를 통해 시각 문화를 형성하고, 미술 관련 직업 세계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다. ‘표현’ 영역에서는 주제 탐색 및 표현 과정 계획 능력과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적합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고, 아이디어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매체 등을 계획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감상’은 미술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과 문화를 대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해 미술의 시대적·지역적·사회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의 전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 상계서, p.5.

미술과 내용 체계는 <표 2>와 같다.

<표 2> 미술 교과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체험	지각	감각을 통한 인식은 자신과 환경, 세계와의 관계를 깨닫는 바탕이 된다	자신과 환경	탐색하기 발견하기 상호 작용하기 활용하기 모색하기 관련짓기
	소통	이미지는 느낌과 생각을 전달하고 상호 작용하는 도구로서 시각 문화를 형성한다.	이미지와 시각 문화	
	연결	미술은 타 학습 영역,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고,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된다.	미술과 다양한 분야	
미술 관련 직업				
표현	발상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 상상, 구상하는 것은 표현의 토대가 된다.	주제와 의도	탐색하기 계획하기 점검하기 활용하기 표현하기
	제작	작품 제작은 주제나 아이디어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 매체 등을 계획하고 표현하며 성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표현 과정과 점검	
			표현 매체	
감상	이해	미술 작품은 시대와 지역의 배경을 반영하고 있어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는 시대적 변천, 맥락 등을 바탕으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미술의 변천과 맥락	설명하기 이해하기 해석하기 활용하기 전시 기획하기
	비평	미술 작품의 가치 판단은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활용한 비평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작품 해석 작품 전시	

출처: 김인규 외 12인(2018), 「중학교 미술① 교사용 지도서」, ㈜미진사, p.12.

미술 교과 내용은 ‘체험’, ‘표현’, ‘감상’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은 한국화의 학습 내용과 연관이 있다. 한국화 중 민화는 정보를 포함하는 시각 이미지로 이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여 시각적 문해력을 기르기에 적합하다. 한국화는 회화 그 자체로 연관이 있다. 작품 창작 활동에서 주제를 탐색하고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하여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한국화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한국화가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IV. 중등 미술 교과서 내용분석

1. 중등 미술 교과서에서의 한국화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감상 영역은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한국화는 이러한 면에서 감상 영역과 관련이 있다. 한국화를 교육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다른 점이 무엇 인지를 파악하며 이에 따른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고 전통 회화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화는 중등 미술 교과서에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술과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출판되는 14개의 중등 미술 교과서①을 중심으로 저자의 전공 현황과 교과서 구성, 한국화 영역 비율, 한국화 단원을 분석하였다.

1) 교과서별 전공 현황

본 논문을 통해 중등 미술 교과서①의 저자의 전공 현황을 알아볼 수 있다. 저자의 전공은 교과서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 각 전공 저자가 많을수록 해당 영역이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화 전공 저자가 부족한 현시점의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교과서별 전공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교과서별 저자 전공 현황

출판사	저자	전공
㈜교학 도서	김형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이화식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졸업
	조경주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 산업미술과 졸업
	장덕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시각디자인과 졸업
	장선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이태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졸업
	김희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양민영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졸업
㈜금성 출판사	최찬경, 박정인, 정영길, 이정석, 한정숙, 정유진 정보 제공 X	
㈜다락원	박성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김일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이인규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제은주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허미연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진보경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졸업
	박용창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차미정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고석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신관미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동아출판	장선화	홍익대학교 공예학과 졸업
	김향남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노정길, 김향희, 이정은, 도경아 정보 제공 X	
㈜리베르 스쿨	현은령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과 졸업
	이원희	공주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졸업
	김순희	충북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졸업
	임가영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과 졸업
	조성인	건국대학교 텍스타일디자인학과 졸업
	박현아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과 졸업
㈜미래엔	연혜경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조우호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임명숙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윤지숙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이주연	덕성여자대학교 서양화
	이상돈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
	신은희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회화과
㈜미진사	김인규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강해중	경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고숙현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고영옥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곽수지	서울여자대학교 공예학과, 서양화과 졸업
	김연수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 졸업
	나미경	홍익대학교 공예과 졸업
	이정임	고려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함종호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홍은정	강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주)비상 교육	정현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장연자, 백애정, 전형우, 이소현, 김성연 정보 제공 X	
(주)씨마스	김용주, 조익환, 윤명화, 강제희, 김용순, 정윤정, 심혜숙, 김민수, 조안나 정보 제공 X	
(주)아침나라	최정아, 정경식, 정은영, 김지영, 조인호, 안수현, 이경아, 신은정 정보 제공 X	
(주)지학사	김정희, 안혜리, 송희성, 김혜선, 한경주, 장금희, 권재중 정보 제공 X	
전체 교과서	김선아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안금희	서울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장지성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윤영섭	서울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심효진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졸업
	박슬기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과 졸업
	지가혜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과
	이은선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과
(주)해냄에듀	서예식, 김기나, 김도홍, 도병훈, 손동호, 이다정, 이창식, 임종삼, 고정근, 김기태, 윤정은, 이정원 정보 제공 X	
(주)YBM	심영옥, 정만홍, 박지선, 김지은, 김병욱, 채주리, 심새미 정보 제공 X	

교과서별 저자의 한국화 전공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저자 중 한국화 전공의 비율은 (주)다락원 20%, (주)교학도서와 천재교과서 12.5%이다. (주)리베르스쿨과 (주)미래엔, (주)미진사는 0%이다. 동아출판과 (주)비상교육은 부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알 수 없다. (주)씨마스, (주)아침나라, (주)해냄에듀, (주)YBM은 저자의 전공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중등 미술 교과서 구성

본 항에서는 각 교과서의 구성 방식과 한국화 단원의 내용 체계 영역을 알아보았다.

중등 미술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반영하여 구성하여 핵심 역량과 미술 교과 역량, 내용 체계를 미술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미술 교과서는 도판이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교과서의 구성 방식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등 미술 교과서 구성 방식과 특징을 출판사별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등 미술 교과서는 중학교 미술과 내용 체계에 따라 체험, 표현, 감상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교과서 한국화 단원의 내용 체계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화 학습 영역에 알맞게 배치하여 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알아보았다. 한국화 단원의 설정 기준은 한국화의 개념과 특성이 잘 나타나는 전통 회화 단원과 한국화의 시대적·문화적 배경을 잘 나타내는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 단원으로 설정하였다.

(1) 교학도서

- 교학도서 교과서는 대단원, 중단원, 소주제, 단원 요약으로 구성하였으며 중단원과 소주제는 함께 제시하고 있다.
- 대단원 : 미술 3개 영역(체험, 표현, 감상)을 5개의 대단원(01.미술과 자연, 02. 미술과 읽기, 03.미술과 통합, 04.미술과 표현, 05.미술과 문화)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각 대단원의 도입부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대표 작가 그리고 그의 작품을 해설하였다. 학습에 들어가기 이전에 단원의 성격과 달성해야 할 학습 활동과 수업의 중점을 기술하여 이번 학습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중단원과 소단원(소주제) : 중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고, 학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소단원(소주제)을 제시하였다. 주제와 맞는 활동을 제시하고 관련된 예시 작품을 제시하였다.
- 본문 : 단원 내용에 따라서 ‘알고 가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습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로 필요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활동’에서는 각 중단원에 학습 목

표를 실현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평가’에는 학습 목표와 성취 기준을 학생 스스로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 단원 요약 : 단원의 마무리 부분에 ‘탐구 보고서’와 ‘단원 요약’을 첨부하여 활동을 마무리하고 학습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학습 개념과 지식을 정리하였다.
- 내용 체계 영역 : 한국화 단원은 1-2. 자연을 그리기(체험, 감상)와 5-3.한국 및 동양 미술사 살펴보기(표현)로 구성되었다.

(2) 금성출판사

- 금성 교과서는 3개의 대단원(I.미술과 체험, II.미술과 표현, III.미술과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단원 없이 여러 개의 소단원과 본문, 정리와 보충으로 구성되어있다.
- 대단원 : 대단원 첫 부분에 대단원 내용과 관련된 글을 넣어 흥미를 이끌고 밑 부분에 소단원 제목을 제시하여 앞으로 배울 학습에 대해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단원 : 학습목표와 ‘핵심용어’, ‘생각열기’를 제시하였고 관련된 이미지를 제시하여 본문에 들어가기 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본문 : 교육 내용에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을 삽입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알고 가기’에서는 핵심 단어들과 그 뜻을 설명하여 학습에 용이하게 하였다. ‘평가탐구’에서는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리와 보충 : 각 소단원의 제목과 핵심 단어들을 한 번 더 언급하여 단원을 정리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내용 체계 영역 : 한국화 단원은 2-10.전통 회화 즐기기(표현)와 3-1.우리나라 미술 탐험(감상)으로 구성되었다.

(3) 다락원

- 다락원 교과서는 대단원, 중단원, 본문, 단원 마무리로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단원 열기, 학습 목표, 단원 열기, 알고가기, 생각

넓히기, 미술다지기, 활동, 단원 마무리로 단계가 세분되어있다.

- 대단원 : 4개의 대단원(I.미술로 만나는 세상, II.조형의 기초, III.관찰과 발상, IV.미술 문화의 이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단원의 도입부에는 단원의 내용과 관련된 작가 작품 혹은 학생작품을 제시하였다.

대단원의 제목과 함께 학생들에게 주제에 관한 질문을 던져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하였고, 중단원에 목차를 제시하여 학습 과정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였다.

- 중단원 : 중단원의 도입 부분에 단원명이 보기 쉽게 적혀져 있으며 단원명 옆에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에 대해 인식하게 하였다. 단원 열기를 통해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 본문 : ‘알고 가기’을 통해 학습 개념을 짚어주고, ‘생각 넓히기’를 통해 탐구 과제와 학습 자료를 제시한다. 본문에서는 학습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때 문에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미술 다지기’에서는 토론과 탐구과제, 읽기 자료, 프로젝트 활동, 진로 탐색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는데 학생은 활동을 스스로 구성하며 계획하고 제작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마무리하여 스스로 점검한다.
- 단원 마무리 : 단원 마무리는 수업에서 배운 단어와 학습 개념에 관해서 설명돼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본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보충해야 할 점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게 하였다.
- 내용 체계 영역 : 한국화 단원은 IV-1.우리나라 미술의 이해(감상)로 구성되었다.

(4) 동아출판

- 동아출판 교과서는 영역에 따라서 4개의 대단원과 1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는 참고 문헌·사진 및 인용 출처가 포함되어 있다. 동아출판 미술교과서①은 체험, 감상 영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 대단원 : 대단원은 총 4개(1.빛나는 나의 세상, 2.미술과 함께하는 삶, 3.미술 작품과 나누는 이야기, 4.미술로 떠나는 여행)로 구성되었다. 대단원은 단원명과

함께 단원에서 배운 내용과 기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제시한다. 단원 학습 후 목표에 대해 학생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쓰도록 한다.

- 소단원 : 소단원은 12개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1.단원명, 2.학습 용어 및 단원 역량, 3.생각 꿈틀, 4.궁금해요, 5.용어 풀이, 6.더 알아보기, 역량 쑥쑥, 7.활동, 8.활동 기능, 유형, 9.나의 성장 확인하기, 10.생활 속에서 역량 기르기 프로젝트, 11.생각 키움, 주제로 보는 미술, 12.요점만 쑥쑥으로 소단원을 살펴볼 수 있다.

‘학습 용어 및 단원 역량’에서 소단원의 미술 역량을 큐브 5개로 제시하여 단원의 해당 역량에 색을 입히고 해당하지 않은 역량은 흑백으로 처리하였다. ‘궁금해요’는 단원의 학습 내용과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여 학습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용어 풀이’를 통해 어려운 용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활동’은 여러 개를 제시하여 학생의 흥미에 맞는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활동 기능, 유형’에서는 활동에 따른 기능과 유형을 제시한다. ‘나의 성장 확인하기’는 단원 학습을 끝낸 후 자신이 학습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 속에서 역량 기르기 프로젝트’는 단원에 마무리 부분에서 진행하여 미술 역량,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진행한다. ‘생각 키움, 주제로 보는 미술’은 학습 내용에 따라 다르게 구성이 되며 읽기 자료 혹은 서술형 논술형 문제 그리고 토론 활동까지 진행하여 단원 학습 내용에서 확정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요점만 쑥쑥’은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속에 자신의 역량을 1~5점으로 평가하도록 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 내용 체계 영역 : 한국화 단원은 3-1.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나누기(감상)와 4-2.우리나라 미술의 발자취를 따라서(감상)로 구성되었다.

(5) 리베르스쿨

-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대단원, 중단원, 본문, 정리해볼까요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분화하면 단원 열기, 학습 목표와 생각 열기, 본문 학습, 표현 과정과 점검, 정리해 볼까요로 구성되어있다.
- 대단원 : 대단원은 총 5개(1.자신과 환경, 2.이미지와 시각문화, 3.주제와 의도,

4.조형 요소의 원리와 효과, 5.미술의 변천과 맥락)로 구성되어있다.

대단원의 도입 부분에 단원 열기를 통해 각 단원의 성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단원의 내용과 관련된 작품을 제시하여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다. 등장인물의 말풍선을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중단원 :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학습하기 전에 미리 목표를 확인하며 ‘생각 열기’를 통해 흥미를 유도하였다.
- 본문 : 주제와 관련된 도판을 제시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도판은 미술적·역사적·예술적 의의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고, 학생 작품은 우수한 작품과 평균적인 작품을 수록하였다. 말풍선을 사용하여 작품의 설명을 전달해 학습자가 내용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였다. 연계 학습 자료를 학생에게 제공하여 폭넓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활동은 단계별로 자료를 제시하였다.
- 정리해 볼까요 : 단원의 이해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학습 내용과 관련되는 문제를 풀며 학습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성취 기준에 얼마나 도달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 내용 체계 영역 : 한국화 단원은 5-2.삶을 담은 미술(감상)로 구성되었다.

(6) 미래엔

- 미래엔 교과서는 대단원과 중단원으로 구성되었다.
- 대단원 : 대단원은 7개(I.발상과 조형 탐구, II.평면 표현, III.공간 표현, IV.주제 표현, V.전통 미술의 아름다움, VI.생활 속 디자인, VII.다양한 매체와 표현)로 구성되었다. 각 대단원은 2~5개의 중단원을 포함하고 있다.
- 중단원 : 중단원의 첫 부분에서 본 단원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현활동’은 학습 내용과 관련된 표현활동 예시 작품을 제시해주고 ‘창의놀이터’에서 학습 내용과 관련된 활동과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하기’를 통해 활동을 점검하고 제작이 잘 이뤄졌는지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 요점정리 : 각 단원에서의 핵심 수업 내용과 중요한 단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미지를 통해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OO, 미술을 만나다’는 창의·융합 능력을

기르기 위해 다른 교과와 미술을 연계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해당 학습 활동이 끝난 후에도 ‘평가하기’를 통해 스스로 활동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내용 체계 영역 : 한국화 단원은 V.전통 미술의 아름다움(표현)으로 구성되었다.

(7) 미진사

- 미진사 교과서는 17개의 단원과 활동지로 구성되어있다. 단원은 ‘표현’을 중심으로 ‘감상’과 ‘체험’ 영역을 종합하였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활동을 중점으로 하고 학습량을 줄이되 학습 개념을 구체화한 활동의 양이 많도록 구성하였다.

단원의 도입에는 안내 글로 시작을 하였고 ‘활동’, ‘알고가기’, ‘발전학습’, ‘정리와 보충’, ‘탐구 과제’, ‘성취 평가’, ‘팁’, ‘퀴즈’로 구성되어있다.

- 대단원 : 17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지각과 발상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는 1~4단원 1.감각의 레이더를 작동시켜라, 2.수많은 나, 우리, 3.자세히 보니 예쁘다, 4.다르게 보면 새로움이 보인다로 구성되어있다.

조형요소와 조형 원리를 다루는 5~11단원은 5.빛! 색으로 피어나다, 6.색이 말을 하네!, 7.점으로부터, 8.오리~면, 그리~면, 9.감지하리, 선!, 10.일어서는 입체, 11.무질서와 질서 사이로 구성되어있다.

회화, 조소와 그 외 다른 영역들의 표현 매체의 특성과 방법을 다루는 12~17 단원은 12.전통의 향기로 피어나다, 13.문자 너 아름답구나, 14.우리 가까이 있는 판화, 15.야, 만화와 애니메이션이다, 16.마술을 꿈꾸는 미술, 17.아름다운 쓸모, 즐거움을 만들다로 구성되어 대단원을 크게 3가지의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단원 도입에 단원별 학습 키워드와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학습 전에 학습 개념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 본문 : 다양한 활동을 6~7개 제시하여 수업과 가장 부합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알고 가기’를 통해 개념을 정리하였고 ‘발전학습’을 통해 본문 활동을 보충·심

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탐구과제’는 단원과 관련된 활동이나 과제 등을 좀 더 확장하여 제공하였으며 ‘성취평가’는 단원의 학습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팁’은 활동의 안내와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퀴즈’는 미술사 영역에서 제시하였다.

- 정리와 보충 :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삽입되어 학생이 본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학습 개념을 정리하고 개념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 활동지 : 본 교과서에서 배웠던 작품을 제시하여 각 작품의 작가, 제목, 느낀 점이나 떠오르는 생각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작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 내용 체계 영역 : 한국화 단원은 12.전통의 향기로 피어나다(표현, 감상)로 구성되었다.

(8) 비상교육

- 비상교육은 대단원, 소단원, 본문, 생각열기, 활동, 융합 프로젝트 활동, 학습 정리와 보충, ‘미술 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 대단원 : 대단원은 7개(01.나와 세계, 02.미술과 소통, 03.발상과 주제, 04.표현의 즐거움, 05.생활 속의 미술, 06.작품과의 만남, 07.미술의 흐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은 2~5개의 소단원을 포함하고 있다.
- 소단원 : ‘생각열기’는 학습 전 학생들에게 흥미를 이끌도록 하기 위해 관련 질문을 던져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 본문 : 학습 내용과 관련된 글과 작품을 삽입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은 해당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며 진행하고 활동이 끝난 후에는 ‘자기평가’의 5단계를 통해 자신의 활동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활동 중 안전의 유의점들을 안내하고 있다. 각 활동의 마무리에는 ‘생각확장’을 통해 수업 중 자신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끌어내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융합 프로젝트 활동 :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역량인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학습 정리와 보충 : 단원의 마무리에서 중요한 학습 개념을 정리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미술 퀴즈 : 단원 학습 내용에 관한 질문들은 주관식과 O,X로 문제를 내며 정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바로 아래 답을 적어두었다.
- 내용 체계 영역 : 한국화 단원은 5-1.전통의 멋(표현)으로 구성되었다.

(9) 씨마스

- 씨마스는 대단원, 중단원, 본문, 마무리 활동, 스스로 정리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 대단원 : 대단원은 6개(1.자신과 주변 환경, 2.주제와 표현, 3.표현의 즐거움, 4.전통 미술의 멋을 이어서, 5.마음을 움직이는 디자인, 6.미술의 변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은 2~5개의 중단원(소단원)을 포함하고 있다. 각 단원이 해당하는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을 대단원의 페이지에서 표기하고 있다.
 각 대단원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단원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와 연관 질문과 핵심 질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본 단원을 학습하면 기를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미술 교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중단원 : 단원의 전개 과정 첫 번째로 핵심 질문을 하여 단원에서 학습할 것을 미리 파악하고 생각해볼 수 있다.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사용하여 도입의 이미지 혹은 도판에 관련된 질문을 던져 학습 내용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도입 이미지에 대해 스스로 분석하고 생각해보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학습목표’와 ‘나의 학습 계획’이 연계되어 구성되어있는데 본 학습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인지하게 하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게 하여 학습을 보다 진취적으로 이끌어 내게 한다.
- 본문 : 단원의 본문에서는 학습 내용과 관련 이미지를 제시하여 학습에 이해가 쉽도록 하였고 ‘표현 활동’을 통해 학습했던 내용을 배경으로 작품 활동이 가

능하게 하였다. ‘Tip’에서는 표현 활동에서 필요한 조언을 해주어 좀 더 흥미롭고 활동이 쉽게 도움을 준다. ‘활동 점검하기’의 세 단계를 통해 활동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마무리 활동 : 단원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활동을 진행한다. ‘핵심 질문 되돌아보기’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마무리 활동은 본문과 연관되지만 조금 더 심화한 활동으로 본문 활동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평가하기’를 진행한다.
- 스스로 정리하기 : 각 단원의 마무리 부분에 스스로 정리하기를 통해 본 단원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 용어를 한 번 더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에서는 학습 내용을 통해 어떤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었는지 인지시켜주며 학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내용 체계 영역 : 한국화 단원은 4-1.먹과 채색의 어울림(표현)과 6-1.미술의 변천(감상)으로 구성되었다.

(10) 아침나라

- 아침나라는 대단원, 중단원, 프로젝트 활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프로젝트 활동은 단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있다.
- 대단원 : 나와 세계, 생각과 표현, 매체와 표현, 감상의 즐거움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대단원 나와 세계는 1.나의 발견, 2.더불어 사는 우리, 3.미술로 융합하는 세계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 생각과 표현은 4.새로운 생각, 5.조형의 첫걸음, 6.단색으로 표현하는 소묘, 7.색으로 그리는 세계, 8.색다는 표현으로 구성되어있다.

대단원 매체와 표현은 9.일상 속에 스며든 관화, 10.입체로 표현하는 미술, 11.디지털과 미술의 만남, 12.뿌리 깊은 전통 미술, 13.문자향과 묵향의 멋, 14.내가 만드는 전통 공예로 구성되어있다. 감상의 즐거움은 16.눈에서 마음으로, 17.미술관이 살아 있다로 구성되어있다.

- 중단원 본문 :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본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과 목표를 인식할 수 있다.

‘생각 열기’를 통해 학습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학생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궁금증을 일으켜 흥미를 갖도록 한다. ‘표현 활동’은 각 단원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한다. 학습 내용을 배경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더 알아보기’를 통해 학습 내용을 보충하고 다양한 도판을 제시한다. ‘읽을거리’는 본문의 학습 내용과 연관되며 내용을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진행한다. ‘생각해 보기’는 ‘읽을거리’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점검해 보기’는 단원을 통해 배웠던 것을 점검하여 학습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젝트 활동 : 각 단원에 따라 포함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 활동의 과정에 따라 진행하며 과정은 문제인식 - 계획세우기 - 자료조사/현장 탐방 - 자료정리하기 - 활동하기 - 평가하기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는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내용 체계 영역 : 한국화 단원은 3-12.뿌리 깊은 전통 미술(표현)으로 구성되었다.

(11) 지학사

- 지학사는 대단원, 소단원, 본문, 창의 활동, 프로젝트 수업 및 미술 읽기,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 대단원 : 체험하는 즐거움, 표현하는 아름다움, 감상하는 마음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 체험하는 즐거움은 소단원 4개(1.나, 우리, 그리고 미술, 2.생활 속 시각 문화, 3.세상 속 미술 이야기, 4.미술 직업인 탐방)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 표현하는 아름다움은 소단원 11개(1.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 2.평면 표현 재료의 탐색, 3.대상의 특징을 살려, 4.경험 속으로, 5.유쾌한 상상의 세계, 6.판으로 표현하기, 7.공산 속의 입체 표현, 8.정보를 전달하는 시각 디자인, 9.만화와 애니메이션, 10.수묵과 채색의 아름다움, 11.생활에서 만나는 공예)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 감상하는 마음은 소단원 3개(1.우리나라와 이웃 나라 미술의 변천, 2.

미술 작품, 어떻게 읽을까, 3.아는 만큼 보는 즐거움)로 구성되어있다.

대단원의 도입에서는 간단한 글을 통해 학습할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소단원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 소단원 : 소단원의 도입부에는 ‘핵심역량’, ‘생각 배우기’, ‘생각 이끌기’, ‘생각 깨우기’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 역량’에서는 학습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표시하였다. ‘핵심 질문’은 각 소단원의 내용을 포괄하는 질문으로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생각 배우기’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 내용을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생각 이끌기’는 ‘생각 깨우기’와 관련된 읽을거리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 본문 : 본문에서는 학습 내용 그리고 관련된 도판으로 구성되어있다.

‘용어노트’는 학습 내용에서 설명이 필요한 단어 혹은 용어를 선택하여 보충적으로 설명을 한다. ‘지식 쑥쑥’은 보충자료로 학습을 보다 폭 넓게 해준다. ‘사고력 넓히기’는 학습 내용에서 한층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 창의 활동 : 여러 개의 활동을 제시하여 교사와 학생이 학습 내용과 제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능’은 해당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육과정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TIP’은 원활하게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활동 평가’에서는 활동을 마친 후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스스로 단원 점검’은 단원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과제를 제공하여 해결해볼 수 있도록 한다.

- 프로젝트 수업 및 미술 읽기 : 프로젝트 수업은 단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협동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미술 읽기’는 단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제시하며 생각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 부록 : 부록은 ‘학습 정리’, ‘한눈에 보는 미술사 연대표’, ‘인명사전’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습 정리’는 16개의 소단원의 학습 내용 중 중요한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여 다시 학습하고 모르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한눈에 보는 미술사 연대표’는 한국, 중국, 일본의 미술사를 연대표로 제시하여 시기별로 각 나라 작품의 이미지 도판을 배치하고 있다. ‘인명사전’은 한글 자음 순서로 단

원 학습 내용에서의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 내용 체계 영역 : 한국화 단원은 2-10.수묵과 채색의 아름다움(표현)과 3.1.우리나라와 이웃 나라 미술의 변천(감상)으로 구성되었다.

(12) 천재 교과서

- 천재 교과서는 대단원, 중단원, 본문, 단원 정리로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세분화하여 단계화한다면 단원의 소개, 단원의 시작, 본문 학습, 체험·표현·감상 활동, 단원 정리, 특화 페이지로 구분할 수 있다.
- 대단원 : 대단원은 총 7개(1.미술을 만나다, 2.생각이 피어나다, 3.미술을 즐기다, 4.미술을 읽다, 5.세상을 디자인하다, 6.전통에 물들다, 7.미술 여행을 떠나다)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에서는 해당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미리 확인함과 동시에 미술 교과 역량 중 이 단원을 통해 키울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알아본다.
- 중단원 : 학습 전에 학습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제시하여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에 알아보고 학생들에게 미리 검색하도록 한다. ‘생각 읽기’를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표현해보도록 한다.
- 본문 : 작가와 학생들의 작품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본문에서는 기본 학습 내용을 배워 나가도록 한다. 체험·표현·감상 활동을 통해 창의적 활동을 보충하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 활동을 여러 개 제시하여 수업과 가장 관련 있는 활동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단계를 5개로 제시하였다. 활동 중 필요한 재료를 제시하여 학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돌아보기’를 통해 활동을 잘 수행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원 정리 : 단원 마무리 단계에서 ‘단원 정리’를 통해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하였다. 핵심 역량을 성취하였는지 스스로 평가하여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보충할 수 있다.
- 특화 페이지 : 보다 작품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작가와의 만남을 포함시키고 프로젝트 활동의 제작 과정을 자세하게 담아 이해가 쉽고 본문보다 폭넓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내용 체계 영역 : 한국화 단원은 6-2.수묵, 수묵 담채의 세계(표현)와 7-2.우리 나라 미술의 흐름(감상)으로 구성되었다.

(13) 해냄에듀

- 해냄에듀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체험’과 ‘감상’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해냄에듀는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본문, 학생활동, 프로젝트 활동, 빠짐없이 콕콕!-대단원 보충 정리, 부록으로 구성되어있다.

- 대단원 : 대단원은 I.미술, 세상과 소통하다와 II.미술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있다.

대단원 I 은 중단원 1.나와 환경, 2.이미지와 시각 문화, 3.세상과 함께하는 미술로 구성되어있다. 대단원II는 1.미술과의 대화, 2.미술이 걸어온 길로 구성되어 있다.

- 중단원 : 중단원은 소단원을 2~11개를 포함하고 있다.
- 소단원 : ‘생각 열기’는 단원의 학습 내용과 관련된 명화,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읽기 자료 및 질문 등을 제시하여 학생의 흥미를 유발한다.
- 본문 : 소단원의 학습 내용을 다양한 도판과 쉬운 설명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학습이 용이하게 한다.

‘학습노트’, ‘개념노트’는 보충 설명 및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한다. ‘돌발 질문’은 학생의 확산적·창의적 사고를 위해 본문 중간 중간에 삽입하여 제시하였다. ‘하나 더!’는 학습 내용과 관련이 되며 알아두면 좋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지식 확산’은 소단원과 관련 있으며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시한다.

- 학생 활동 :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은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흐름을 따라 하기 쉽다. ‘활동Tip’에서는 활동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 혹은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 성장 확인 : 소단원에서의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시했으며 질문은 서술형, 토론, 논술형 등으로 제공한다.
- 프로젝트 활동 : 중단원에서 제시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협력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빠짐없이 콕콕!-대단원 보충 정리 : 대단원 마무리 부분에서 부족한 개념을 보충하고 단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 부록 : 박물관·미술관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록하였다.
- 내용 체계 영역 : 한국화 단원은 2-1.아름다운 우리 미술, 시대 속에 꽃피다(감상)로 구성되었다.

(14) YBM

- YBM 교과서는 대단원, 중단원, 본문, 창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단원 : 체험(미술과 사람), 표현(생각과 표현), 감상(작품 감상)으로 나눌 수 있다.
 체험은 중단원 5개(1.생태 환경과 나, 2.소통하는 즐거움, 3.미술 속 다양한 세상, 4.미술과 융합, 5.미술 직업 탐험[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표현은 1.주제를 살려서, 2.표현의 계획, 3-1.다양한 미술 재료, 3-2.생활과 디자인, 3-3.먹의 느낌을 살려서, 3-4.서예의 미, 4.조형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5.다양한 매체의 발견, 6.살아 움직이는 미술로 구성되어 있다.
 감상은 1-1.우리나라의 미술 산책, 1-2.동양 미술의 흐름, 2.미술 작품의 배경, 3.작품 속 이야기, 4.작품 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 중단원 : 중단원의 첫 페이지에서는 2개 정도의 질문 및 관련 이미지를 통해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해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생각 열기’는 학생의 생각을 직접 글로 써보게 한다.
- 본문 : 본문에서는 학습 내용을 텍스트 및 이미지로 설명하고 페이지 하단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학습 목표 설정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설명하게 하여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다. ‘생각과 체험’은 본문의 학습 내용과 연계된 활동으로 학생과 교사가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설명이 더 필요한 용어는 블록을 따로 하여 설명을 보충한다. ‘조사 활동 과정’과 ‘생각과 표현’은 단원의 내용마다 다르게 포함할 수 있다.
- 창의 활동 : 학습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며 ‘자기 점검’을 통해 학습을 잘 진행하였는지 확인한다.
- 내용 체계 영역 : 한국화 단원은 3-3.먹의 느낌을 살려서(표현)와 1-1.우리 나

라 미술 산책(감상)으로 구성되었다.

한국화 단원(전통 회화 개념과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 단원에 한함)에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이 모두 포함된 교과서는 14개 중 교학도서 미술 교과서① 한 권뿐이다. 표현과 감상 둘 다 포함하는 교과서는 금성출판사, 미래엔, 미진사, 씨마스, 지학사, 천재교과서, YBM이다. 표현과 감상 중 하나만 포함하고 있는 교과서는 다락원, 동아출판,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아침나라, 해냄에듀이다.

대부분의 미술 교과서 한국화 단원이 표현과 감상 영역에 치우치는 구성을 보여주었다. 한국화는 ‘체험’, ‘표현’, ‘감상’ 세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한국화의 개념, 변천 과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에 알맞다. 그러나 실제 미술 교과서 한국화 단원에서 체험 영역이 나타난 교과서는 14개 중 1개로 체험 영역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표 4>는 중등 미술 교과서① 14종 속 한국화 단원을 중심으로 내용 체계 영역으로 분류한 한 것이다.

<표 4> 한국화 단원의 내용 체계 영역

교과서 단원	내용 체계 영역		
	체험	표현	감상
㉞교학도서	1-2.자연을 그리기	5-3.한국 및 동양 미술사 살펴보기	1-2.자연을 그리기
㉞금성출판사		2-10.전통 회화 즐기기	3-1.우리나라 미술 탐험
㉞다락원			IV-1.우리나라 미술의 이해
동아출판			3-1.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나누기 4-2.우리나라 미술의 발자취를 따라서
㉞리베르스쿨			5-2.삶을 담은 미술
㉞미래엔		V.전통 미술의 아름다움	
㉞미진사		12.전통의 향기로 피어나다	12.전통의 향기로 피어나다
㉞비상교육		5-1.전통의 멋	

㈜씨마스		4-1.먹과 채색의 어울림	6-1.미술의 변천
㈜아침나라		3-12.뿌리 깊은 전통 미술	
㈜지학사		2-10.수묵과 채색의 아름다움	3-1.우리나라와 이웃 나라 미술의 변천
천재교과서		6-2.수묵, 수묵 담채의 세계	7-2.우리나라 미술의 흐름
㈜해냄에듀			2-1.아름다운 우리 미술, 시대 속에 꽃피다
㈜YBM		3-3.먹의 느낌을 살려서	1-1.우리 나라 미술 산책

3) 중등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영역 비율 분석

출판사마다 페이지 구성과 레이아웃 방식 그리고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 도판과 한국화 영역이 다르게 나타난다. 중등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영역 비율 분석에서는 영역의 대단원, 중단원, 페이지, 비율까지 <표 5>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비율은 각 교과서의 전체 페이지 중 한국화 도판이 포함된 페이지 수의 비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었다.

<표 5> 중학교 미술 교과서 한국화 영역 비율 분석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소단원)	페이지	비율 (한국화/ 전체)
㈜교학도서	01. 미술과 자연	1. 자연을 보기	10	18.1% (20 / 110쪽)
		2. 자연을 그리기	12-13	
		그 외 페이지	6-7, 20, 41	
	02. 미술과 읽기	1. 시각 문화 둘러보기	29	
		3. 숨은 의미 찾기	37	
	03. 미술과 통합	2. 미술과 과학·수학	59	
		3. 미술과 문학·음악	60	
	04. 미술과 표현	1. 회화로 표현하기	69, 72	

	05. 미술과 문화	1. 아름다움과 작품의 가치 찾아보기 2. 우리의 멋 탐구하기 3. 한국 및 동양 미술사 살펴보기	93, 95 97-99 100-101	
㈜금성출판사	01. 미술과 체험	4. 미술, 영역을 넘나들다	20	13.8% (17 / 123쪽)
	02. 미술과 표현	4. 주제 표현의 다양한 탐색	45-48	
		6. 재료와 기법으로 보는 소묘와 채색	55	
		10. 전통 회화 즐기기	72-75	
		11. 문자의 멋과 맛	79	
		그 외 페이지	94	
	03. 미술과 감상	1. 우리나라 미술 탐험	99. 101-102	
		4. 알고 보면 보이는 미술	115	
그 외 페이지		122		
㈜다락원	Ⅲ. 관찰과 대상	1. 대상을 관찰하여	56, 57	13.1% (13 / 99쪽)
		그 외 페이지	68	
	Ⅳ. 미술 문화의 이해	1. 우리나라 미술의 이해	70-73, 75-79	
		그 외 페이지	98	
동아출판	02. 미술과 함께 하는 삶	3. 미술, 융합의 중심이 되다	41	15.5% (14 / 90쪽)
	03. 미술 작품과 나누는 이야기	1.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나누기	49-50	
		2. 볼수록 빠져드는 미술	54, 56, 65	
	04. 미술로 떠나는 여행	1.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미술	70-71	
		2. 우리나라 미술의 발자취를 따라서	73-77	
		4. 서양 미술의 발자취를 따라서	83	
㈜리베르스쿨	04. 조형 요소의 원리와 효과	4. 즐거운 인물 표현	76	11.7% (13 / 111쪽)
	05. 미술의	2. 삶을 담은 미술	87, 89-90	

	변천과 맥락	3. 자연을 담은 미술	91-92	
		4. 미술의 새로운 시작	97	
		그 외 페이지	81, 107-111	
쥬미래엔	01. 발상과 조형 탐구	1. 꽃으로 본 다양한 주제	9	11.9% (14 / 117쪽)
	02. 평면 표현	2. 보고 나타내기	23, 26, 29	
	04. 주제 표현	1. 생활 이야기	47	
	05. 전통미술의 아름다움	1. 전통 회화의 향기	60, 61-65	
		3. 공예의 멋	78, 80-81	
쥬미진사		2. 수많은 나, 우리	19	15.5% (17 / 109쪽)
		3. 자세히 보니 예쁘다	24-26	
		6. 색이 말을 하네!	43, 45	
		12. 전통의 향기로 피어나다	74-81	
		17. 아름다운 쓸모, 즐거움을 만들다	100,103	
		그 외 페이지	109	
쥬비상교육	01. 나와 세계	우리 함께	14	16.1% (17 / 105쪽)
	03. 발상과 주제	주제를 찾아서	37	
	04. 표현의 즐거움	평면에 그리다	47-50	
	05. 생활 속의 미술	전통의 멋	66-69, 71	
	06. 작품과의 만남	작품 속으로	87	
	07. 미술의 흐름	테마로 보는 미술	93-94, 96	
		우리나라 미술 여행	98-99	
쥬씨마스	04. 전통 미술의 멋을 이어서	1. 먹과 채색의 어울림	60-65, 70	11.9% (13/109)
	06. 미술의 변천	1. 우리나라 미술	87-88, 90-93	
쥬아침나라	01. 나와 세계	1. 나의 발견	5	12.6% (12 /
		2. 더불어 사는 우리	12-13	

	02. 생각과 표현	4. 새로운 생각	24	95쪽)
	03. 매체와 표현	9. 일상 속에 스며든 관화	49	
		12. 뿌리 깊은 전통 미술	64-67	
	04. 감상의 즐거움	16. 눈에서 마음으로	82-84	
㈜지학사	01. 체험하는 즐거움	3. 세상 속 미술 이야기	19	19.5% (19 / 97쪽)
	02. 표현하는 아름다움	3. 대상의 특징을 살려	41	
		4. 경험 속으로	46-47	
		10. 수묵과 채색의 아름다움	68-73	
	03. 감상하는 마음	1.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 미술의 변천	83-85	
		2. 미술 작품, 어떻게 읽을까	88	
3. 아는 만큼 보이는 즐거움		92, 96-97		
부록	그 외 페이지	104-105		
㈜천재교과서	01. 미술을 만나다	2. 기호와 상징	15, 26	17.2% (19 / 110)
	04. 미술을 읽다	1. 작품과의 만남	60, 61	
		2. 작품 속 의미 찾기	63, 65	
	06. 전통에 물들다	2. 수묵, 수묵 담체의 세계	88-91	
07. 미술여행을 떠나다	1. 미술사 만나기	100-101		
	2.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	102-106, 109-110		
해냄 에듀	II. 미술이 들려주는 이야기	1. 미술과의 대화	55, 57, 63	9.2% (9 / 97쪽)
		2. 미술이 걸어온 길	66-70	
		그 외 페이지	90	
㈜YBM	02. 표현/생각과 표현	2. 표현의 계획	40	10.3% (10 / 97쪽)
		3-3. 먹의 느낌을 살려서	48-49	
		6. 살아 움직이는 미술	61	
	03.	1-1. 우리나라 미술 산책	72-73	

	감상/작품감상	2. 미술 작품의 배경	82-83	
		3. 작품 속 이야기	86-87	

한국화 영역을 10% 이상 포함하는 교과서는 지학사, 교학도서,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동아출판사, 미진사, 금성출판사, 다락원, 아침나라, 미래엔, 씨마스, 리베르스쿨, YBM이다. 10% 미만인 교과서는 해냄에듀이다.

<표 6>은 위 <표 5>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화 영역(한국화 도판을 포함하는 페이지)의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 6> 한국화 영역 비율 분석 결과

	한국화 영역 비율
1	(주)지학사 19.5%
2	(주)교학도서 18.1%
3	(주)천재교육 17.2%
4	(주)비상교육 16.1%
5	(주)동아출판사, (주)미진사 15.5%
7	금성출판사 13.8%
8	(주)다락원 13.1%
9	(주)아침나라 12.6%
10	(주)씨마스, (주)미래엔 11.9%
12	(주)리베르스쿨 11.7%
13	(주)YBM 10.3%
14	해냄에듀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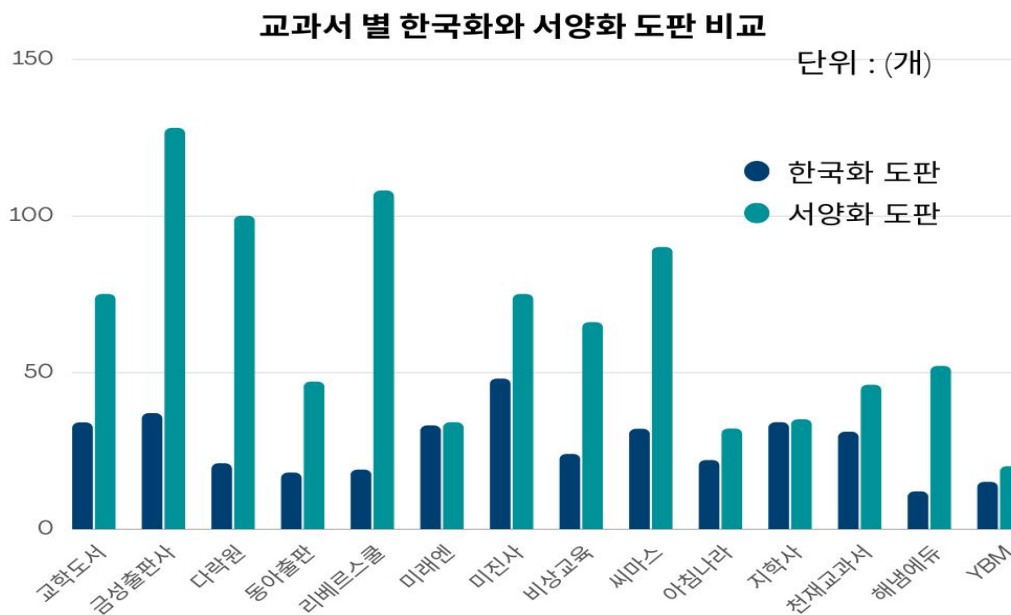
중등 미술 교과서① 14종을 한국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한 결과 한국화의 비율이 제일 높은 출판사는 교학도서로 19.5%이고, 제일 낮은 출판사는 해냄에듀로 9.2%이다. 차이가 2배가 넘게 나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출판사마다 도판 비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교과서별 한국화와 서양화 도판 수

(단위 : 개)

	한국화	서양화	차이(배)		한국화	서양화	차이(배)
㈜교학도서	34	75	2.2	㈜비상교육	24	66	2.7
㈜금성출판사	37	128	3.4	㈜씨마스	32	90	2.8
㈜다락원	21	100	4.7	㈜아침나라	22	32	1.4
동아출판	18	47	2.6	㈜지학사	34	35	거의 차이 없음
㈜리베르스쿨	19	108	5.6	천재교과서	31	46	1.4
㈜미래엔	33	34	거의 차이 없음	㈜해냄에듀	12	52	4.3
㈜미진사	48	75	1.5	㈜YBM	15	20	1.3

<그림 3> 교과서별 한국화와 서양화 도판



<표 7>은 각 교과서의 한국화와 서양화 도판의 수를 분석하여 회화별로 도판의 차이가 있음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도판의 구분은 시대와 재료로 나누었다. 한국화 작품의 시대는 고려 시대 벽화부터 현대까지를 기준으로 하였고, 재료는

묵이나 다양한 채색 재료를 사용하는 한국화를 포함하였다. 서양화 작품의 시대는 로마 시대 벽화부터 현대까지를 기준으로 하였고, 재료는 수채물감, 유화물감, 아크릴물감, 파스텔 등을 사용하는 작품을 포함하였다.

한국화와 서양화 도판의 차이가 두 배 이상인 교과서는 교학도서, 금성출판사, 다락원, 동아출판,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씨마스, 해냄에듀가 있다. 각 교과서에서 한국화와 서양화의 도판 수와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었으나 그 차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3>을 별도로 삽입하였다.

<그림 3>은 <표 7>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교과서의 한국화와 서양화 도판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통해 14개의 출판사별 도판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중등 미술 교과서 한국화 단원 분석

중등 미술 교과서에서 한국화 영역이 교과서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본 항에서는 한국화 도판을 포함한 여러 단원중 한국화의 개념을 주로 다루는 단원과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다루는 단원에 한하여 분석하도록 하였다. 각 교과서의 단원명, 페이지, 학습 목표, 작품 도판은 표로, 학습 내용과 표현활동 내용은 글로 풀어 단원 분석을 정리하였다. 교과서에서 한국화의 개념 단원과 시대적 변천 과정 단원의 여부를 확인하고 각 교과서의 한국화를 학습할 때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이를 찾을 수 있음을 목표로 하였다.

(1) 교학도서

교학도서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교학도서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단원명	페이지	학습 목표	작품 도판
1-2. 자연을 그리기	12-13	• 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과 관계를 알고, 이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다.	어몽룡<월매도>, 민영익<노근묵란도>, 장습업<국석도>, 이정<풍죽도>, 남계우<화접도>

5-3. 한국 및 동양 미술사 살펴보기	100-101	다. •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미술사를 통해 우리나라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안건<몽유도원도>, 강희안<고사관수도>, 김시<동자견려도>, 김명국<달마도>, 정선<인왕계색도>, 김정희<부작란도>, 장승업<쌍치도>, 신윤복<쌍검대무>
-----------------------------------	---------	--	---

(주)교학도서에서 한국화 영역은 여러 단원에 걸쳐 예시 작품을 통해 나타나지만, 그중 한국화 영역을 뚜렷하게 보여준 대단원 01.미술과 자연 속 중단원 2.자연을 그리기와 대단원 05.미술과 문화 속 중단원 3.한국 및 동양 미술사 살펴보기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2.자연을 그리기 단원을 살펴보자면 자연을 관찰하여 사실적인 그림을 표현하는 단원으로 자연을 주제로 하는 사군자가 설명되어있다. 사군자의 개념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소재로 하여 그려진 작품들이 소개되어있다. 사군자 뿐만 아니라 전통 회화의 특징과 묵을 사용한 표현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현 방법의 개념 설명과 표현 방법의 예시가 학생작품을 통해 한눈에 알기 쉽게 드러나 있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3. 한국 및 동양 미술사 살펴보기는 한국 미술사와 동양 미술사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단원이다. 전통 회화는 조선 시대부터 한국 근대 미술까지 도판이 포함되어 있고 주로 조선 시대 작품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한국화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의 특징을 설명하여 변천 과정 속 한국화의 이해를 도와주었다. 그러나 작품 도판의 크기가 작아 특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주)교학도서는 회화의 개념과 설명을 비교적 쉽게 해설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론에 편중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국화의 재료를 사용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학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예 한국화를 활용한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P.29에서는 원형을묘정리의케를 재구성하여 모형 작품을 만드는 활동이 있다. 한국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케를 이해하고 학습하여 한국의 문화를 재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2) 금성출판사

금성출판사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을 살펴보면 <표 9>과 같다.

<표 9> 금성출판사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단원명	페이지	학습 목표	작품 도판
2-10. 전통 회화 즐기기	72-75	• 전통 회화의 종류와 표현법을 알고 전통의 깊이와 멋을 발견할 수 있다.	정선<인왕제색도>, 이계호<포도도>, 김보민<갈매기>, 장재록<또 다른 풍경-스파이커>, 홍세섭<유압도>, 조희룡<홍매도 대련>, 김정희<세한도>, 작자미상<까치와 호랑이>, 이왈중<제주 생활의 중도>, 조속<금궤도>, 서구방<수월관음도>, 신선미<오르골 3-2>, 작자미상<책가도>
3-1. 우리나라 미술 탐험	99, 101-102	•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알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무용총 수렵도>, <강서대묘 현무도>, <천마총 천마도>, 신사임당<초충도>, 강희안<고사관수도>, 윤두서<자화상>, 이암<화조구자도>, 이정<목죽도>, 김명국<달마도>, 강세황<영통동구>, 신윤복<연소담청>, 장승업<호취도>, 김두량<월야산수도>, <십장생도>

(주)금성출판사는 한국화 영역이 대단원 02.미술과 표현 속 10.전통 회화 즐기기 와 대단원 03.미술과 감상 속 1.우리나라 미술 탐험에서 나타나고 있다.

2-10.전통 회화 즐기기는 산수풍경 작품을 제시하여 작품 속 사용된 기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생각 열기로 문을 열고 있다. 본 단원에서는 전통 회화의 기본 묘법인 구름법, 물골법, 백묘법과 삼목법의 개념과 작품을 삽입하여 알아보기 쉽고 구분하기 쉽게 하였다. 준법과 점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 더욱 세세하게 한국화 표현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수묵화와 수묵 담채화의 학습 내용에서 전통적인 작품과 다양한 재료를 같이 사용한 현대적인 작품을 같이 배치하여 한국화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채색화 학습 영역에서는 진채화에 대한 설명과 전통 회화와 현대적인 진채화의 작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발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 전통 회화도 다양하고 색다른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3-1.우리나라 미술 탐험에서는 전체적인 한국 미술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선사

시대의 미술에서는 토기, 거울의 도판이 수록되어 있고 삼국 시대 미술부터 회화가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 미술에서는 벽화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각 시대의 특징에 관해 설명하고 있어 각 벽화의 시대적 특징을 알기 쉽다.

조선 시대에서는 초충도, 고사관수도, 자화상, 초충도, 달마도 등을 제시하여 다양한 종류의 전통 회화를 두 페이지에 걸쳐 역사의 변천 과정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금성출판사 미술 교과서①에서는 활동의 부제가 아쉽다. 2-1. 전통 회화 즐기기에 활동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도서 p.158을 살펴보면 [활동 25] 전통 채색화 기법으로 민화 그리기와 [활동 26] 수묵 그림으로 컵 꾸미기 활동이 있다. 이 활동은 교과서①에서는 진행하지 않으며 교과서②에서 진행한다. 그 이유는 교과서①은 감상 학습 중심이기 때문이다. 감상 학습에서도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 감상에 그치지 않고 더욱 확장된 생각할 수 있으며 학습 내용의 이해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동 부제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3) 다락원

다락원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다락원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단원명	페이지	학습 목표	작품 도판
IV-1. 우리나라 미술의 이해	70-73, 75-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미술의 역사를 알고 독자적인 특징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을 알고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최은숙<新인왕제색도>, <무용총 수렵도>, <강서대묘 현무도>, <천마총 천마도>, <수월관음도>, 안견<몽유도원도>, 신사임당<초충도>, 김명국<달마도>, 윤두서<자화상>, 신윤복<미인도>, 장승업<호취도>, 정선<인왕제색도>, 김홍도<단원 풍속도첩 중 씨름>, <십장생도 10폭 병풍>, 변파식<외금강 삼선암 추색>, 박생광<범과 모란>

IV-1.우리나라 미술의 이해는 우리나라 각 시대의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살펴보고 작품에 반영된 삶의 태도와 고유 미적 감수성을 살펴보는 단원 열기로 중단원을 시작하였다. 본 단원에서는 우리나라 미술 시대별 주요 작품, 년도, 특징,

배경을 설명해주며 해당 작품을 사진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순서는 선사 시대, 삼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근현대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려 시대에서 수월관음도를 도판으로 제시하였지만, 고려 시대 작품의 특징이나 도판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 시대에 비해 설명이 있지만, 역시나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각 시대의 특징이나 비교 점을 제시하였다면 학생들이 각 시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p.79에서는 활동 1.한국 미술가의 방 만들기를 통해 우리나라 작가를 선정하고 그 작가의 시대적 배경을 직접 찾아보게 하여 흥미를 이끌고 그 작가의 방을 상상하여 만들어보는 창작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 후 감상 시간을 갖고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미술가들의 작품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고, 선조들의 삶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주)다락원은 중단원 1.우리나라 미술의 이해를 통해 한국의 미술 흐름과 시대별 대표 작품들은 사진을 이용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고 단원의 마무리에서 활동을 진행하여 작품을 만들어보고 감상하고 평가까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감상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험하고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작품 도판을 제시하는 데 도판의 크기가 페이지의 3/4을 차지하고, 작품의 설명이 1/4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작품을 이해하기에 설명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품과 설명을 비슷한 크기로 삽입하고 개념 설명이 보충되었다면 학생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덜할 것이다. 다른 아쉬운 점은 한국화 영역에 있어 전통 회화 영역이 빠져 있어 한국화의 개념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화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 회화의 개념적 설명과 시대적 변천 과정의 설명 모두 필요하다.

(4) 동아출판

동아출판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동아출판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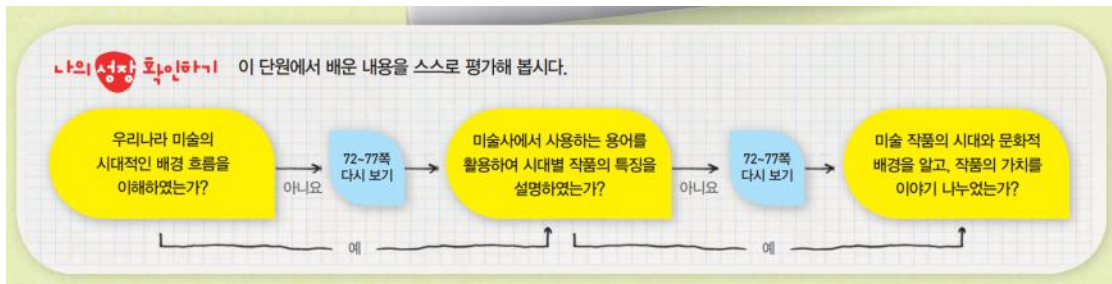
단원명	페이지	학습 목표	작품 도판
4-2. 우리나라 미술의 발자취를 따라서	73-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변천에 따른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미술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무용총 수렵도>, <천마도>, 서구방<수월관음도>, 안견<몽유도원도>, 김명국<달마도>, 정선<금강내산전도>, 전기<매화초옥도>, 박내현<노점>, 작자미상<오불도>

동아출판은 여러 단원에 걸쳐 한국화를 다루고 있으나 1, 2단원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화 작품을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 대단원 3에서는 변상벽의 <모계영자도>를 통해 미술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고 작품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며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해볼 수 있고 제시된 답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답까지 찾을 수 있다. 절차와 대화를 통해 한국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쉽게 정보를 찾아낼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대단원 4.미술로 떠나는 여행에서는 한국화를 주로 다루고 있다. 중단원 2.우리나라 미술의 발자취를 따라서에서는 시대별 변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시대를 세로 선을 기준으로 선사 시대부터 현대미술까지의 흐름에 따라 학습을 진행했으며 삼국 시대 미술부터 한국화 영역이 시작된다. 고구려 미술에서는 무용총 수렵도를 이 시대의 대표 작품으로 제시하여 세로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작품에 대한 특징과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작품을 보여준다. 조선 시대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어 시대별 작품과 설명을 하고 있다. 조선 초기의 설명은 고려 시대와 중국으로 받은 영향을 설명해주며 조선 전기의 특징을 이에 비춰 얘기해주고 있다. 중기는 시대적 배경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문에 발생한 화풍과 절과를 예를 들며 작품의 특징과 연관 짓고 있다. 근대 미술에서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변화를 작가와 작품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 회화의 시대적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은 있음에도 한국화 자체에 대한 개념적 설명이 포함된 단원이 없었다.

중단원 마무리에서는 ‘나의 성장 확인하기’를 통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보도록 하였다. 다른 교과서의 자기 평가와 다른 것은 질문에 예/아니오로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떠한 질문에 예/아니오를 선택했을 때 다른 질문이 뒤따라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을 때 복습해야 하는 곳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학습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다른 교과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방법이다.



<그림 4> 동아출판 미술①, p.77.

동아출판은 한국화 영역에 관한 활동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 P.41에서 한국화 도판이 사용되기는 제시 자료 중 하나였을 뿐 한국화와 관련된 활동은 아니다. 대단원3의 활동2. ‘작품 속 의미를 찾아 새롭게 표현하기’(p.57)는 미술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 새롭게 표현해보는 활동이다. 한국화 중 민화는 의미를 담아 그리는 그림이 많다. 예를 들어 신사임당의 <수박과 들쥐>의 수박은 씨앗을 담고 있는 열매로 이는 다산을 상징하며 들쥐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 부자가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채색화 작품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으며 활동으로 진전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채색화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5) 리베르스쿨

리베르스쿨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을 살펴보면 <표 12>과 같다.

<표 12> 리베르스쿨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단원명	페이지	학습 목표	작품 도판
5-2. 삶을 담은 미술	87, 89-90	• 인간이 중심이 된 미술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갈까요? 인간 중심의 미술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풍속화 작품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김홍도<서당>, <기와 이기>, <씨름>, 신윤복<단오풍정>, 윤덕희<공기놀이>

리베르스쿨은 한국화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단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대신 여러 단원(5-2.삶을 담은 미술, 5-3.자연을 담은 미술, 5-4.미술의 새로운 시작)에 걸쳐 한국화 작품과 그에 대한 설명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중단원 ‘2.삶을 담은 미술’의 도입부는 김홍도의 <서당> 속 상황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흥미를 유발한다. 도입부의 “얼핏 보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그림이 과연 어떻게 그려졌고, 왜 유명해진 것일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작품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작품에 대해 많은 생각과 상상들을 일으키게 만든다. ‘생각열기’를 통해 <서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측해보고 이를 글로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5-2.삶을 담은 미술에서는 르네상스 미술, 풍속화, 동양의 풍속화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한국화는 풍속화의 장점과 동양의 풍속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동양의 풍속화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내용이 적으며 한국화를 온전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화 단원이 3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한 활동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문제점은 중단원 2~4 모두 해당하며 한국화의 시대적 변천 과정 또한 설명이 부족함이 있다.

(6) 미래엔

미래엔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미래엔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단원명	페이지	학습 목표	작품 도판
V.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	60-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회화의 표현 특징을 알아보고, 재료와 용구의 사용 방법을 익혀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정선<통천 문암>, 홍세섭<진금상축>, 조순호<바람꽃>, 박순철<마이동풍>, 신하순<아침 산책>, 학생작품<빨리 뛰어>, 학생작품<옆 동네>, 어몽룡<월매도>, 민영익<노근목란>, 정조 대왕<국화>, 이정<풍죽>, 학생작품<대나무>, <매화>, <개구리>, 천경자<사월>, 남계우<꽃과 나비-대련>, 김선두<행(行)51-그리운 봄>, 정홍래<옥일취도>, 작자미상<책거리>, 학생작품<모란꽃>

미래엔 교과서의 V.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에서는 가운데의 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긴 수묵화가 삽입되어있고 오른쪽 윗부분에는 전통 회화에 대한 설명과 용어 설명이 되어있다. 다음으로는 수묵과 수묵 담채, 채색화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수묵과 수묵 담채에서는 수묵화의 개념과 방법, 표현기법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 특이한 점은 필선을 연습하는 다양한 방법(가로선, 갈필, 윤필)을 작품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 다른 교과서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하고 실제로 연습할 때 유용한 구성이다.

‘표현활동’에서는 ‘일상생활 속의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수묵담채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2개의 학생작품의 제시하여 활동의 예시를 들어주고 있다. 이에 아쉬운 점은 신하순의 <아침 산책>과 같이 채색을 이용한 작품을 제시하였음에도 활동을 진행할 때는 수묵 담채를 이용한 작품으로 진행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한국화도 풍부하고 다양한 재료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학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7) 미진사

미진사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미진사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단원명	페이지	학습 목표	작품 도판
12.전통의 향기로 피어나다	74-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회화의 멋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작자미상<와유첩>, 강세황<영통동 입구>, 학생작품<영통동 입구 모작>, <입체 수목 산수화>, <나>, <나를 보고 웃는 나>, <거인>,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는 법>, <빛이 피어나다>, <무당벌레처럼 빨간 떡볶이>, <학원 가기 싫어라>, 변윤희<허전함을 허기로 착각한 어느 날>, 김득신<강변회음>, 학생작품<시험을 잘 보는 방법>, <내가 HOT뜨거 핫>, <시간을 달려서>, <야식 배달>, 작자미상<책거리>, 하루.K<맛있는 풍경>, <무용춤>, 안건<사시팔경도>, 정선<인왕제색도>, 강희언<인왕산도>, 안건<몽유도원도>, 강희안<고사관수도>, 신사임당<수박과 여치>, 안중식<어해도>, 이암<모건도>, 작자미상<모란도>, 김정희<세한도>, 김홍도<편자박기>, 신윤복<저장길>

미진사 교과서의 중단원 ‘12.전통의 향기로 피어나다’에서는 전통 수묵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단원 첫 페이지에서 김홍도의 작품 <금강사군첩>을 모방으로 한 작품이 삽입되어 있으며, 그 밑으로는 한국화의 준법 6개가 설명되어 있다. 미점준, 하엽준, 피마준, 부벽준, 수직준, 절대준의 표현 방법과 표현 특징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다. ‘활동’은 수업과 가장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게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다.

‘활동① 곡면 위에 피어난 산수화’는 갯지에 전통 산수화를 모방하여 그리는데 활동 중 준법에 쓰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충분히 연습하여 표현한다. 연습 후에는 종이컵에 산수화를 그려 넣어 입체적인 형태로 쌓는 것까지를 마무리로 하였다.

‘활동② 먹의 농담으로 그리는 나’는 먹의 농담 효과를 이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

회를 갖도록 하였다.

‘활동③ 서 있는 그림, 병풍’은 종이 윗부분에 먹을 묻히고 종이를 세워 먹이 흘러내리는 효과를 이용하여 나뭇가지를 그려내고 주변부에 꽃과 풍경 등을 그리고 낙관을 찍어 문인화를 그리는 활동이다.

‘활동④일상, 작품이 되다’는 자신의 삶 중 한 장면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인쇄한 후 이를 한지 밑에 넣어 비치는 형태를 따라 그리도록 한 후 물감으로 색칠 및 테두리를 그려 완성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풍속화(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그림)의 개념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학생이 자신의 삶을 그려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그리는 것이 곧 풍속화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구성하였다.

‘활동⑤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이야기하는 민화’는 전통 민화의 소재를 현대 사회 속에서 찾아 표현하는 활동이다. 전통이라는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오래되고 어려운 것이라는 느낌을 탈피하여 현대라는 친숙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킨다.

미진사는 한국화의 시대적 변천 과정이나 개념보다는 한국화는 표현 기법과 활동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한국화의 준법이나 표현 기법을 단어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은 ‘정리와 보충’을 통해 보충해주고 있다. ‘발전학습’을 통해서 본 활동에서 부족했던 전통 회화의 시대 흐름을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된 작품과 현대적인 작품을 찾아보는 것까지 제시하였다.

이 교과서의 장점은 활동에 집중하여 학생들이 한국화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화가 전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이며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었다. 또한 활동마다 관련 작품 사진을 삽입하고 관련 한국화의 개념을 설명하여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언뜻 이론의 개념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정리와 보충’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적은 나오지 않을 것이나 시대적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한국화를 이해하기에 수월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8) 비상교육

비상교육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을 살펴보면 <표 15>과 같다.

<표 15> 비상교육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단원명	페이지	학습 목표	작품 도판
5-1.전통의 멋	66-69,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회화의 표현 방법과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 서예와 전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에 활용할 수 있다. 	심사정<장림운산>, 정선<인곡유거도>, 김홍도<주상관매도>, 정조<파초도>, 이종상<독도의기 ii>, 신사임당<가지와 방아깨비>, 이숙자<청황백-보리가 영글 때>, 남계우<꽃과 나비>, 작자미상<화조도 8곡병>, 학생작품<나비부채>, 김홍도<환선정>, 학생작품<나의 산수유람>, <토끼 이야기>
7-3.우리나라 미술 여행	9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그 맥락을 설명할 수 있다. 	<수렵도>, <수월관음도>, 정선<금강전도>

비상교육은 여러 단원에 나누어 한국화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5-1.전통의 멋’은 전통 회화와 서예 전각을 다루고 있는 단원이다. 단원의 첫 부분은 ‘생각열기’를 통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자신이 생각하는 전통에 대한 생각과 만약 과거로 간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상상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는 상상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하도록 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회화와 서예에 대한 특징을 다루면서 작품 속 멋을 느껴보도록 제안하고 있다. 심사정의 <장림운산>을 삽입하여 조선후기의 작품 표현의 특징과 화가에 대한 설명을 설명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각 페이지에 해당하는 제목을 통해 무엇을 다룰 것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농담과 여백의 아름다움’에서는 전통 회화에서의 정신적 표현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 선조가 어떠한 의미에서 여백이라는 공간을 사용하는지 이 공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하고 있어 서양화와는 다른 한국화의 미를 보여준다. 작품들은 농담과 여백의 미가 잘 드러나는 작품들로 어느 부분에서 잘 드러나는지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채색화의 아름다움’은 채색화와 민화를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작품의 바탕이 되는 종지와 물감을 사용하는 방법과 작품의 개념, 작품의 용도를 설명해주고 있다. 설명에 사용된 작품은 조선시대 작품부터 현대 작품까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활동1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산수화를 그려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붓, 먹, 벼루, 서진과 같은 전통적인 재료와 하드보드지, 채색 도구 등 현대적인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자기평가’를 통해 표현법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스스로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단원의 마무리 부분에 ‘학습 정리와 보충’이 삽입되어 중요한 개념과 그 특징에 대해 다시 정리하고 ‘미술 퀴즈’를 통해서 이제까지 학습한 내용의 정답을 맞춰보고 틀렸다면 밑에 있는 답과 맞추어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문에 한국화 개념적 설명이 적어 이해하기에 부족하지만 ‘학습 정리와 보충’에서 이를 보충하였다.

‘7-3.우리나라 미술 여행’에서는 우리나라 미술사를 시대별로 특징을 정리하였다. 선사 시대부터 근현대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조선 시대에서는 유행에 따른 한국화의 변천 과정과 근현대에서는 서양에 영향을 받아 이전과는 다른 한국화의 모습과 대표적인 작가를 나열하고 있다.

비상교육은 간결한 설명과 적절한 작품 예시를 통해 설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더욱 확대하여 상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작품의 크기가 크지만, 설명이 적지 않게 적절히 페이지를 구성하였다. 비상교육의 장점은 표현에서의 ‘자기 평가’도 있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이론에 대한 평가였다면 이 교과서에서는 개념을 이해하여 표현까지 이끌어 평가하는 것이 학생들이 한국화를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9) 씨마스

씨마스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 씨마스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단원명	페이지	학습 목표	작품 도판
4-1. 먹과 채색의 어울림	60-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회화의 표현 기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전통 회화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철주<일출봉>, 이해동<혼돈>, 이종상<기-독도 v>, 심정주<포도>, 학생작품<화분>, 오용길<봄의 기운>, 학생작품<물속 세상>, 박노수<산>, 학생작품<두루미>, 강호성<길채비>, 이지원<우리 동네>, 작자미상<십장생도>, 학생작품<나팔꽃>, 학생작품<페스티벌>
6-1.우리나라 미술	87-88,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과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나타난 양식상의 변화를 탐색하여 설명할 수 있다. 	<수렵도>, 서구방<수월관음도>, 김시<한림제설도>, 정선<인왕제색도>, 진기<계산포무도>, 김홍도<무동>, 신윤복<뱃놀이>, 김득신<과적도>

씨마스는 '4-1.먹과 채색의 어울림'에서는 한국화의 개념을 '6-1.우리나라 미술'에서는 미술의 변천 과정을 다루어 한국화의 학습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4-1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4-1.먹과 채색의 어울림'은 수묵화,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라는 제목으로 본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본문을 구성하는 형식은 같다. '1.먹과 채색의 어울림'에서는 '핵심질문' 전통회화의 표현기법이 무엇이 있는지 학습할 내용에 대해 힌트를 주면서 표현기법에 대해서 생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핵심질문'뿐 아니라 말풍선에서의 보조 질문은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해당 작품에 사용된 재료가 무엇인지, 종이에 먹이 번지는 기법은 어떻게 하였는지 다양한 질문을 통해 학생은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으며 궁금증을 가지며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학습 목표' 옆 '나의 학습 계획'을 통해서 용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할 수 있다. 본문 제목인 수묵화 옆에 수묵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농담의 변화와 효과를 2개의 작품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먹의 농

담 변화를 더욱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품에 농담의 명칭을 삽입하고 작품에 대비 효과를 주어서 변화가 잘 드러나게 하였다. 구름법, 물골법, 백묘법을 이용하여 같은 작품을 각기 다른 표현 기법으로 그려내어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수묵화 ‘표현활동’은 정물을 전통 회화의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그리는 활동으로 작품 활동 후 ‘활동 점검하기’의 잘함, 보통, 못함의 세 단계로 활동을 점검할 수 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 활동’에서 모둠 활동을 진행하여 전통 회화 기법을 활용하여 협동화를 그린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주제를 의논하고 선택하여 역할 분담을 한다.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작품을 하나로 합치도록 한다. 작품 완성 후 함께 감상하며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수정 사안을 통해 작품을 보완하여 완성한다.

활동 마지막에도 ‘스스로 평가하기’를 통해 자신이 마지막으로 표현기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는 ‘스스로 정리하기’ 속 주요 용어가 정리되어있어 중요 단어의 개념을 마지막으로 학습하며 단원 핵심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씨마스는 학습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교과서와 다른 점은 ‘마무리 활동’을 협동 활동으로 진행시킨 것이다. 이 활동에서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함께 감상하고 수정 및 보완한다는 것이 독특하다.

(10) 아침나라

아침나라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을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표 17> 아침나라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단원명	페이지	학습 목표	작품 도판
3-12. 뿌리 깊은 전통 미술	64-67	• 전통 회화의 특징과 원리를 이해 할 수 있다.	박대성<행자목>, 진현미<겹 0103>, 학생작품<자화상>, 민병권<동정>, 이암<화조구자도>, 학생작품<고양이>, 변상벽<묘작도>, 안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묵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먹의 농담을 살려 표현할 수 있다. 	<노안도>, 학생작품<사과 부채>, <바이올린 부채>, 오태학<소>, 서기환<사람 풍경 WEDDING II>
--	---	--

아침나라는 여러 단원에서 한국화 작품을 도판으로 삽입하였다. 그러나 한국화를 중심으로 다루는 단원은 12.뿌리 깊은 전통 미술로 이 단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로 시작을 열고 있다. 채색화 작품 예시를 통해 근경과 원경의 표현 방법을 알아보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문 학습 내용을 전통 회화의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재료와 기법에 따른 분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에서는 수묵화의 물골법, 구름법, 백묘법의 작품 예시와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표현 활동’은 총 3개로 첫 번째 활동은 먹을 이용하여 먹의 표현 특징을 이해하고 화선지에 수묵화를 그리는 활동이다.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작품 예시를 제시하였고 먹의 농담 효과의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삼목법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활동은 동물을 그리는 활동으로 민화 중 영모화를 설명하여 이해가 쉽도록 도와주었다. 세 번째 활동은 수묵 담채를 이용하여 부채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으로 여백의 미를 고려하며 진행하도록 하였다. 수묵 담채로 그리는 활동이기 때문에 채색화의 제작 과정을 설명해주며 이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활동에서는 ‘점검해 보기’를 통해 학습을 잘 확인하였는지와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활동을 진행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아침나라의 장점은 3개의 활동을 제시하여 한국화의 종류(수묵화, 민화, 채색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개념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본문 학습 내용에 전통 회화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4~5줄에서 그쳤으며 다른 단원에서는 한국화 작품을 삽입하였지만 역시나 한국화의 역사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단원 정리 부분에 ‘정리와 보충’을 삽입하여 중요 학습 단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잘 확인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점을 보완하여 교과서의 구성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한국 회화의 시대적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11) 지학사

지학사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 지학사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단원명	페이지	학습 목표	작품 도판
2-10. 수묵과 채색의 아름다움	6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회화의 특징을 탐색하고 전통 회화의 계승과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 • 수묵화와 수묵 담채화의 표현 재료와 용구의 활용 방법을 익혀 표현할 수 있다. 	정선<무봉산중도>, 김정희<세한도>, 이암<모견도>, 강세황<사군자 병풍>, 박노수<풍안>, 김홍도<황묘농집>, 작자미상<아미타삼존도>, <화조영모도>, <책거리>, <문자도>, 진현미<겹-0318>, <겹-0319>, 유주연<어느 날>, 학생작품<불꽃놀이>, <풍경>, <장수 민화>, <강아지>, <포도>, <채소 바구니>
3-1.우리나라와 이웃 나라 미술의 변천	8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과 시대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무용총 수렵도>, 서구방<수월관음도>, 신사임당<수박과 들쥐>, 김명국<달마도>, 안견<몽유도원도>, 정선<박연 폭포>, 강세황<자화상>, 이상범<초동>, 신윤복<쌍견대무>

지학사 교과서의 2-10.수묵과 채색의 아름다움에서는 ‘생각 깨우기’로 시작하고 있다. 한 작품을 예시로 들어 표현 방법에 대한 질문 2개를 던져 학생 스스로 표현기법을 비교하고 특징을 작성하도록 한다.

본문 학습 내용은 수묵화와 수묵 담채화, 채색화, 전통 회화의 현대적 해석으로 나누어 학습하도록 교과서를 구성하였다. 수묵화와 수묵 담채화는 전통 회화에 대한 개념과 분류를 작품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용어 노트’에서는 문인화와 사군자를 설명하고 ‘지식 쑥쑥’은 소재에 따른 분류를 설명하고 있다.

본문 채색화 학습 영역에서는 채색화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사고력 넓히기’를 통해 민화 중 책가도의 과일, 부채 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추측해보며 작품을 관찰하고 추측할 수 있도록 한다. 본문 전통 회화의 현대적 해석에서는 전통 회화와는 다른 현대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활용한 작품에 대해 탐색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다. ‘사고력 넓히기’를 통해 전통 회화가 어떤 새로운 곳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본문 학습 내용 후에는 ‘창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활동은 총 3개로 각 수묵화

그리기, 의미를 담아 민화 그리기, 수묵 담채화 그리기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단원 점검’을 통해 이 단원을 통해 배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3단원-1.우리나라와 이웃 나라 미술의 변천’에서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지학사는 부록의 ‘학습정리’를 통해 학습의 핵심 단어와 그 뜻을 정리하여 학생이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아쉬운 부분은 본문 제목이 전통 회화의 현대적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은 전통 회화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론으로는 현대적인 한국화를 배웠음에도 실질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지 못하였다.

(12) 천재 교과서

천재 교과서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을 살펴보면 <표 19>과 같다.

<표 19> 천재 교과서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단원명	페이지	학습 목표	작품 도판
6-2. 수묵, 수묵 담채의 세계	88-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묵화와 수묵 담채화의 특징과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수묵화, 수묵 담채화 기법을 활용하여 주제와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선<인왕제색도>, 이응로<닭>, 오용길<봄의 기운-주왕산>, 학생작품<친구 모습>, 서세옥<사람들>, 강세황<사군자>, 학생작품<씩씩한 민들레>, <봄날 고양이>, <텅 빈 마음>, <연꽃>
7-2.우리나라 미술의 흐름	103-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별 대표 작품들을 감상하고 양식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시대적·지역적·사회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강서대표 현무도>, <천마도>, 혜허<양류 관음도>, 안견<몽유도원도>, 이정<풍죽>, 김명국<달마도>, 정선<금강전도>, 김득신<야묘도 추>, 전기<매화초옥도>

6-2.수묵, 수묵 담채의 세계에서는 ‘생각열기’는 대화하는 듯한 문체로 학생들에

게 앞으로 나올 내용과 관련된 먹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밑으로는 ‘나의 수묵화 감상기’라는 정선의 <인왕제색도> 감상문을 삽입하여 작품에 사용된 표현과 이름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작품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본문 학습 내용은 수묵화, 수묵 담채화의 표현기법과 의미를 담은 수묵화와 수묵 담채화로 구성되었다. 수묵화, 수묵 담채화의 표현기법에서는 이응로의 <닭>에서 발묵법, 삼묵법, 과묵법이 드러나는 해당 부분을 확대하고 설명하고 있다. 이 구성의 흥미로운 점은 닭을 그려낼 때 같은 기법으로만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발묵법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하고, 팔은 삼묵법을 이용하여 농묵, 중묵, 담묵이 표현되게 하고 발은 과묵법을 이용하여 마디를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어 한 작품에도 부분마다 다른 표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에서는 같은 꽃을 주제로 하여 다른 표현법으로 그려낸 세 개의 작품을 제시하여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활동’은 시와 그림을 그려내는 문인화를 창작하는 활동으로 작품의 구도를 생각하고 여백을 고려한 후에 표현 기법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진행시켰다. 활동이 끝난 후에는 ‘활동 점검’을 통해 작품에 글과 시가 조화롭게 어울리는지, 주제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표현기법을 잘 활용하였는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마무리에서 ‘돌아보기’에서 본 학습 내용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작품 활동에서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원이 수묵화와 수묵 담채를 다루기 때문에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나 전통적인 재료로도 다양하고 새로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학생들이 ‘한국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데 도움이 된다.

‘7단원 미술 여행을 떠나다’는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을 학습할 수 있으며 한국화의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 중 특히 p.105-106은 조선 초기부터 근현대미술을 다루고 있으며 근현대미술은 시대 흐름에 따라 동일한 화풍의 작가별로 설명하고 있다.

(13) 해냄에듀

해냄에듀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을 살펴보면 <표 20>과 같다.

<표 20> 해냄에듀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소단원명	페이지	학습 목표	작품 도판
2-1.아름 다움 우리 미술, 시대 속에 꽃피다	6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속에 담긴 미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윤두서<자화상>, <청룡도>, 서구방<수월관음도>, 안견<몽유도원도>, 정선<인왕제색도>, 김홍도<무동>, 작자미상<까치와 호랑이>, 변관식<외금강 삼선암 추색>

해냄에듀는 중단원 2.미술이 걸어온 길에서 한국화 영역이 다수로 분포되어있다. ‘생각 열기’는 윤두서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감상하고 물음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며 작품에 관한 짧은 글을 인용하여 학생들에게 작품에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페이지 속에는 우리나라 조형 세계에 배경과 우리나라의 미술의 특징에 대한 예고를 전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과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선사 시대를 시작으로 근현대까지 진행되며 한국화 작품은 고려 시대부터 삽입되었다. 조선 시대에서는 유행하는 화풍과 장르를 소개하였고 근현대 미술은 서양의 문화로 인해 달라진 양식에 따른 작품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였다. 말풍선 속 대화하는 문체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

해냄에듀는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과 시대의 특징을 다루었지만, 한국화에 대한 개념 설명이 부족한 구성이다. ‘대단원 보충 정리’를 통해 진경산수화에 대한 설명과 예시 작품이 삽입되었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보충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조선 시대의 다양한 회화(진경산수화, 초상화, 풍속화, 민화, 문인화 등)에 대한 소재의 공통점과 차이점, 현대 한국화와 앞으로의 한국화의 예시 그리고 발전 경향, 한국화를 이용한 활동이다. 특히 아쉬웠던 점은 ‘학생 활동’인데 p.55에는 민화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론 수업에서 그친다. 활동에 민화를 활용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을 민화형식으로 그려내거나 혹은 한국화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풍경을 직접 그려보는 학생의 흥미도 고려하고 이론에서 활동까지 연계시키는 활동이 첨부되어야 한다.

(14) YBM

YBM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YBM 중학교 미술① 한국화 단원

단원명	쪽수	학습 목표	작품 도판
표현 3-3.먹의 느낌을 살려서	48-49	• 전통 회화의 재료와 용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정선<금강전도>, 조지운<목매>, 김정희<불이선란>, 강세황<목죽>, 이정<풍중도>, 학생작품<먹의 느낌>, <수묵화 티셔츠>
감상 1-1.우리 나라 미술 산책	72	•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 할 수 있다.	정선<박연 폭포>, 작자미상<무용총 수렵도>

YBM에서는 여러 단원에 걸쳐 한국화 영역이 나타난다. 그러나 명확하게 한국화를 다루는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때문에 표현과 감상에서 각 1개를 선택하여 한국화 영역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3.먹의 느낌을 살려서는 전통 회화에 관한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정선의 <금강전도>에 해당하는 전통 회화의 묘사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해당하는 부분을 찾도록 한다. 제시된 전통 회화 묘사법은 평원법, 심원법, 구름법, 고원법, 점묘법, 물골법, 백묘법이 있다. ‘생각과 표현’에서는 먹의 농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담묵, 중묵, 농묵의 개념과 예시 사진을 삽입하였다.

본문 내용에서 전통 회화의 재료, 기법에 따른 그림의 종류, 그리는 대상에 따른 작품의 종류 등 전통 회화의 특징과 표현기법을 설명한다. ‘창의 활동’은 부체에 수묵화로 풍경을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풍경에서 근경, 중경, 원경을 잘 표현하도록 지도하였다. 이 활동의 장점은 전통 회화가 종이, 비단이라는 바탕재를 벗어나 다양한 곳에 그릴 수 있는 회화라는 것을 활동을 통해 알려주었

다는 것이다.

활동이 끝난 후 ‘자기 점검’을 통해 표현 과정을 돌아보고 수업에서 배웠던 전통회화의 재료와 용구, 전통회화의 방법을 이해하고 활동에 적용했는지 점검할 수 있다.

1-1.우리나라 미술 산책은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을 학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삼국 시대의 무용총 수렵도가 가지고 있는 고구려의 불교 미술 문화 특성을 설명한다. ‘생각열기’를 통해 진경산수화에 대해서 감상하고 다른 학생들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YBM의 특이한 점은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습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나의 학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표 22-1>은 각 시대의 한국화 도판이 어느 단원에서 나타나는지 분류한 표이고, <표 22-2>는 각 교과서의 한국화 도판을 표현 재료에 따라 분류한 표이다. 도판은 한국화 단원(한국화 개념, 시대적 변천 과정)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표 22-1> 한국화 단원 도판 분석(시대)

(단위 : 개)

교과서	단원	시대 구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
㉞교학도서	개념			5	
	변천			8	
㉞금성출판사	개념		1	8	4
	변천	3		11	
㉞다락원	변천	3	1	9	1
동아출판	변천	2	1	5	1
㉞리베르스쿨	X			5	
㉞미래엔	개념			9	11
㉞미진사	개념	1		16	15
㉞비상교육	개념			8	5
	변천	1	1	1	

(주)씨마스	개념			2	12
	변천	1	1	6	
(주)아침나라	개념			3	9
(주)지학사	개념		1	7	10
	변천	1	1	6	1
천재교과서	개념			2	9
	변천	2		7	
(주)해냄에듀	변천	1	1	5	1
(주)YBM	개념			5	3
	변천	1		1	

<표 22-2> 한국화 단원 도판 분석(표현 재료)

(단위 : 개)

교과서	표현 재료에 따른 구분		
	수목, 수목 담채화	채색화	그 외
(주)교학도서	10	3	
(주)금성출판사	15	10	2
(주)다락원	6	8	
동아출판	4	4	
(주)리베르스쿨	4	1	
(주)미래엔	13	6	1
(주)미진사	16	15	1
(주)비상교육	9	7	
(주)씨마스	18	4	
(주)아침나라	7	5	
(주)지학사	17	11	
천재교과서	17	3	
(주)해냄에듀	5	3	
(주)YBM	7	1	2

한국화 작품의 시대는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근·현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네 시대의 작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교과서는 7개이며 다른 교과서들은 최소 1개에서 3개의 시대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지학사 도판인 <화조영모도>는 연대 미상으로 <표 22-1>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22-2>의 표현 재료는 수묵화 재료를 사용하는 수묵 그리고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 그리고 그 외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한국화 단원의 도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화의 개념과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의 내용을 모두 담은 교과서는 14개 중 7개로 절반의 교과서만이 이러한 구성을 보인다. 그 외의 7개의 교과서는 개념과 변천 과정의 내용을 하나만 포함하거나 혹은 아예 한국화 단원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둘째, 한국화 도판이 특정 시대의 작품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향을 보인다. 14개의 미술 교과서 중 3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들이 조선 시대 작품을 다른 시대의 작품보다 많거나 혹은 같게 구성하였다. 한 시대의 작품으로 도판 구성이 치우쳐지는 것은 학생들이 다양한 시대의 작품과 시대에 따른 다양한 표현기법을 배울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화 단원의 도판 중 삼국 시대 혹은 고려 시대 작품을 포함하지 않는 교과서가 있다. 삼국 시대는 한국화가 처음 시작되는 역사적인 시기이며 고려 시대는 우리나라만의 귀족적 취향이 드러나는 화려하고 우아한 채색화가 나타나는 시대이다. 이러한 한국화적 의의가 있는 시대의 작품을 포함하지 않는 한계를 발견하였다.

넷째, 작품 도판의 표현기법과 도판 속 작품에 사용된 재료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게 구성되어있다. 한국화 도판은 수묵화, 수묵 담채화, 채색화, 그 외의 재료(혼합재료)를 사용한 회화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14개 중 2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 도판의 대부분이 수묵화, 수묵 담채화로 치우쳐져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표현기법을 학습하고 체험해야 하는 교육적 내용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학생들은 이러한 오류가 있는 구성으로 인해 한국화의 표현기법과 재료가 한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

2. 중등 미술 교과서의 문제점

현재 미술 교육 현장에서는 전통 회화인 한국화를 지도하는 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에 당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학교 미술 교과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출판사별 전공 현황, 교과서의 구성, 한국화 영역 비율, 한국화 단원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저자들에 의해 집필되고 학생들에게 학습하도록 하는 교재이다. 교육과정이 반영되지만, 저자들에 의해 교과서가 구성되기 때문에 저자의 전공 역시 교과서 편찬의 중요한 부분이다.

교과서별 전공 현황은 중등 미술 교과서① 14종의 저자 전공을 분석한 결과이다. 교과서에 따라서 다르게 저자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교과서도 있다. 한국화 전공의 저자를 포함하고 있는 교과서는 교학도서, 다락원, 미래엔, 천재 교과서이다. 14개의 교과서 중 4개만이 한국화 전공 저자가 있으며 저자 110명 중 5명만이 한국화를 전공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화 영역 비율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표 5> 한국화 비율 분석 결과를 통해 교과서 14종의 한국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교과서와 가장 낮은 교과서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를 통해 한국화 영역의 비율의 차이가 극심하며 특히 그중에서도 10%가 넘지 못하는 교과서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화 단원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 회화인 한국화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다. 한국화의 개념, 한국화의 종류, 제작 과정의 설명 등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전통 회화와 문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교과서 내의 한국화 영역이 적다는 것이다. 한국화와 서양화 도판의 수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잘 드러난다. 한국화 도판과 서양화 도판

의 차이가 가장 심한 교과서는 약 5.6배가 차이 난다. 이를 통해 한국화 도판이 서양화 도판에 비해서 적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화가 나타나는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통 회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적 변천 과정이다. 미술 교과서①의 문제점은 이 둘을 모두 명확하게 포함하는 교과서가 14개 중 7개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두 영역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설명이 부족한 교과서도 있다. 전통 회화인 한국화의 개념과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학습하여 자신의 전통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한국화는 이를 통해 자신의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회화이다. 이러한 이유로 두 영역 모두에서 한국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화의 의미, 특징, 종류, 표현기법, 재료 등 개념을 학습하고 이해하며 ‘활동’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여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를 이끌어야 한다. 다른 문제점은 한국화가 적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활동 역시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은 먹을 사용한 수묵화를 그리는 활동으로 채색화를 이용해서 하는 활동은 적게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채색화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그리는 기회가 적으므로 한국화는 묵을 이용하여 그리는 수묵화 혹은 수묵담채화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현재의 중등 미술 교과서① 14종의 분석을 통해 한국화 내용 및 구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관련 논문 및 자료들을 수집하고 참고하여 한국화 이론과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미술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화시대에 이르러 국가, 교과서, 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가 이를 객관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중등 미술 교과서①은 구성에 있어 미술 영역의 분배가 균등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일부의 정보만 전달된다. 그로 인해 일부의 정보가 전부이며 곧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술 교과서 내의 한국화 영역은 교과서 내의 편파적인 교과서 구성으로 인해 개념과 이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한국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이 부족하여 한국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중등 미술 교과서① 14종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나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은 출판사별 전공 현황, 중등 미술 교과서 구성, 한국화 영역 비율, 교과서의 한국화 단원을 기준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술 교과서의 저자들의 전공 중 한국화 전공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교과서를 구성할 때 저자들에 의해서 내용의 구성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으며 해당 영역에 전문성과 교과서에서 해당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자들의 전공과 교과서의 구성은 별개라고 할 수 없다. 저자들의 전공 중 한국화 전공은 110명 중 5명으로 그 수가 굉장히 적다. 이러한 상황들이 한국화의 영역 비중이 낮은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중등 미술 교과서 내의 한국화의 도판의 수와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본 논문을 통해 중등 미술 교과서 중 한국화 도판이 차지하는 페이지의 비율을 알아보았고 그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화 도판과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이론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한국화와 접촉하는 횟수를 늘려 전통 회화와 멀어지려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여러 미술의 장르가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현재 미술 교과서는 한국화 영역이 교과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전체 교과서 페이지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전통 회화를 학습하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한국화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교과서 내용 속 한국화는 전통 회화적인 내용과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한국화는 시대적으로도 회화적으로도 중요한 회화이다. 회화적 개념과 이론 설명 그리고 시대적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를 학습하여 학생들이 한국화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한국화가 이론에서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미술이라는 과목 특성상 이론뿐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한국화는 이론에서 활동까지 이어지는 구성이 적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미술의 분야를 고르게 분배하고 한국화가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화 활동을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며 보다 현대적이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통 회화’와 ‘한국화’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리감을 줄이고 친숙해지려면 재료와 표현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붓, 먹, 벼루 등 전통 재료만을 사용하기보다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물감, 종이로도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며 한지가 아닌 다양하고 새로운 바탕재 및 표현 재료를 사용하여 한국화가 어렵다거나 거리가 멀고 오래된 것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본 논문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 교과서를 분석하여 한국화 영역의 교육 현황을 알아보았다. 한국화 교육을 통해 미술 교육과정의 목적과 적합한 인간상을 길러내고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전통 회화를 배움으로 문화 정체성과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백범영(1997), 「한국화의 이해」, 용인대학교 조형연구소.

윤희순(1994), 「조선미술사통론」, 동문선.

위상(2021), 「위상 미술이론. 2」, 미래가치.

<학술논문>

고승희(2006), “서구방필 수월관음도 문양을 통해 본 유파 연구”, 「강좌미술사」, 제26권, 제26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842.

김민(2019), “고려불화와 조선불화에 사용된 채색 비교”. 「석당논총」, 제73권, 0호,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p.61.

문명대(2015), “泉屋博古館 소장 서구방(徐九方)필 1323년 작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연구”, 「강좌미술사」, 제45권, 0호, 한국미술사연구소, p.384.

오세권(2004), “수용자 해석 공간으로서 ‘여백’(餘白)에 대한 연구 - 현대 한국화에서 나타나는 ‘여백’ 표현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제5권, 제4호, 한국기초조형학회, p.16.

<학위논문>

고명희(2018), “한국 근·현대 채색화의 표현기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부 고시>

교육부 고시(2015),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2015), “제2015-74호[별책13]”,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중학교」.

<교 과 서>

- 김형숙 외 7인(2018), 「중학교 미술①」, (주)교학도서.
최찬경 외 5인(2018), 「중학교 미술①」, (주)금성출판사.
박성식 외 9인(2018), 「중학교 미술①」, (주)다락원.
장선화 외 5인(2018), 「중학교 미술①」, 동아출판.
현은령 외 7인(2018), 「중학교 미술①」, (주)리베르스쿨.
안혜경 외 6인(2018), 「중학교 미술①」, (주)미래엔.
김인규 외 12인(2018), 「중학교 미술①」, (주)미진사.
김인규 외 12인(2018), 「중학교 미술① 교사용 지도서」, (주)미진사.
정현일 외 5인(2018), 「중학교 미술①」, (주)비상교육.
김용주 외 8인(2018), 「중학교 미술①」, (주)씨마스.
최정아 외 7인(2018), 「중학교 미술①」, (주)아침나라.
김정희 외 6인(2018), 「중학교 미술①」, (주)지학사.
김선아 외 7인(2018), 「중학교 미술①」, 천재교과서.
서예식 외 7인(2018), 「중학교 미술①」, (주)해냄에듀.
심영옥 외 6인(2018), 「중학교 미술①」, (주)YBM.

<참고 사이트>

-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화」, <https://terms.naver.com/>, 2022년 11월 1일.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 회화」, <https://terms.naver.com/>, 2022년 12월 14일.

<신간기사>

- 남해신문, “문화정체성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문화정체성은 무엇인가?(1)”, 2022년 11년 04일.

<ABSTRACT>

Middle School Art Textbook

Content Analysis

- Focused on the area of Korean Painting -

So-Eun Park

Department of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ang-Hui Lee

Art in school education is a key subject that can cultivate creative talents with correct personality and cultural skills. In addition, through art activities, it is possible to develop refinement as a cultural citizen by understanding culture, which is the spiritual and material heritage of mankind,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The current art curriculum makes it difficult for teenagers to gain a sense of belonging and stability by first encountering foreign cultures without establishing cultural self-identity, and causes difficulty in establishing self-identity.

This study aims to recognize the need for Korean Painting education and find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in order to objectively accept information and find cultural subjectivity, away from the concept and perception of Western art.

Before analyzing the 14 types of art textbook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Korean painting was investigated, and then the content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the art curriculum were investigated.

For the content analysis of secondary art textbooks, the current status of majors by publisher, composition, ratio analysis of Korean painting areas, and analysis of Korean Painting units were conducted. As for the status of majors by publisher, the number of authors of Korean painting majors in secondary art textbooks 14 was analyzed.

The composition of secondary art textbooks analyzed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extbooks and examined the complementary points. The ratio of Korean painting areas was analyzed by analyzing the ratio of pages including Korean painting drawings among all pages of each textbook, and comparing the number of Korean painting and Western painting drawings. For the analysis of Korean painting units, the learning contents of Korean painting units in each textbook were analyzed and characteristics were written.

As a result, the current status of authors of 14 Korean painting majors in art textbooks 14 was 0% of the lowest textbooks, and the highest textbooks were Darakwon, accounting for 20% of the auth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atio of the Korean painting area, the textbook with the highest Korean painting area was Jihaksa, which accounted for 19.5% of the total pages, and the lowest textbook was Haenaemedu, which accounted for 9.2%.

The result was that the proportion of the Korean painting area of all analyzed textbooks was less than 20%.

In addition, in the analysis of the Korean Painting Uni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Korean Painting Unit focuses on theory and the experience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a simple way that is difficult to attract interest.

In this paper, several measure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presented. First, in constructing the authors of art textbook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xpertise of Korean painting education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Korean painting major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and diversity of Korean paintings in art textbooks, and to equalize the number of exposures of drawings by genre. Accordingly, experience activities for each genre should also be evenly organized.

Third, in the content of the art textbook, it should be explained including both the conceptual explanation of Korean painting and the content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Korean art.

Fourth,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learning contents of art textbooks so that Korean painting can continue from theory to activity.

Fifth, Korean painting activities should be organized so that various materials and new methods can be used to attract students' interest.

Through this study, we hope that traditional painting education in textbooks will be developed to help establish cultural identity and self-identity by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art textbooks, objectively collecting information from away Western ideas and perceptions, and learning traditional culture and painting educa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2023. 2.